

글로벌 블록체인 기술·정책·산업 동향

Global Blockchain Tech, Policy & Industry Trends

블록체인 기술·정책·산업

CONTENTS

1. 2023 암호화폐 규제, 투명성과 명확성 요구 통해 시장 성숙 전망
2. 2023년 블록체인 영향력 건재...규제강화 및 웹3·보안기술 진화
3. 日, 스테이블코인 유통 금지 해제...디지털자산 본격 수용 결정 평가
4. 中, 암호화폐 금지 정책 불구 국가 주도 '디지털자산 거래소' 출범
5. 美 국세청, 지난해 디지털자산 70억 달러 압수...전년 대비 2배 증가

블록체인 기술·정책·산업 동향

디지털산업본부 블록체인산업단 블록체인정책팀

[글로벌]

2023 암호화폐 규제, 투명성과 명확성 요구 통해 시장 성숙 전망

- 2022년, 암호화폐 기업의 연이은 실패로 신뢰 훼손...2023년, 지속적 혁신 활동으로 시장 성숙 전망
- 각국 규제, 산업 육성과 투자자 보호에서 조율에 주력...국경을 넘는 규제 협력은 미흡 단계

글로벌 컨설팅업체 PwC가 2022년을 암호화폐에 대한 신뢰가 붕괴한 해였다고 진단하고, 2023년에는 리스크 관리 및 거버넌스 개선 등 암호화폐 기업에 명확성을 요구하는 규제 활동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

▶ 2022년, 암호화폐 기업의 연이은 실패로 신뢰 훼손...2023년, 지속적 혁신 활동으로 시장 성숙 전망

- PwC는 암호화폐 연간 보고서*에서 2022년 암호화폐 시장을 롤러코스터를 한 해였다고 평가하고, 2021년 3조 달러를 넘었던 시가 총액이 2022년에 1조 달러 이하로 추락한 사실을 가장 충격적 사실로 지목
* PwC Annual Global Crypto Tax Report 2022
- 이러한 암호화 겨울(Crypto Winter)은 테라·루나, 3AC, 셀시우스와 가장 최근의 FTX와 같은 유명 암호화폐 기업이 잘못된 비즈니스 관행과 유동성 위기로 인한 파산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
- PwC는 암호화폐 공간에 대한 신뢰가 깨졌다고 지적하고, 규제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순 없지만, 리스크 관리 및 거버넌스 개선, 새로운 정의와 규제 적용 등 명확성 확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
- 각국 규제 당국은 암호화폐 기업에 투명성과 명확성을 요구하는 규제 도입에 집중하고 있고, 2022년부터 시작된 법 집행 강화 추세가 올해 들어 범위와 강도 면에서 모두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
- 또 기존 대형 거래소 중심의 규제가 올해는 소매 암호화폐 거래소, 헤지펀드 및 토큰 등에도 본격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스테이블코인을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국가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임
- PwC는 암호화폐는 본래 통제 없이 작동하도록 설계됐지만, 암호화폐에 대한 글로벌 규제 프레임워크 부족은 암호화폐를 포함한 디지털 자산의 혁신과 소비자 보호에 해를 끼친다고 지적
- 이 때문에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강화는 필연적이라고 지적하고, 규제가 강화될수록, 디지털자산과 전통 금융, 현실세계 간 통찰력이 중요해진다고 강조
- 하지만, PwC는 규제강화 추세와 별개로 디지털 공간에 대한 투자와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채택 및 혁신 활동도 늘어날 것으로 판단해 2023년은 암호화폐 시장이 성숙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결론
- 암호자산 업계는 규제 도입 및 강화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고, 규제를 통한 투자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당국의 규제 결정 과정에서 투명성과 긴급성 결여에 대한 우려가 공존하고 있음

▶ (규제 현황) 각국 규제, 산업 육성과 투자자 보호에서 조율에 주력...국경을 넘는 규제 협력은 미흡 단계

- PwC는 지난해 암호화폐 시장의 시장 무결성에 대한 믿음이 붕괴해 올해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포괄적인

글로벌 규제 및 감독 프레임워크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

- 암호화폐 규제에서 국제 협력이 크게 강조되면서, 일찍부터 암호화폐 관련 법안과 규제를 준비해 온 국가들을 중심으로 표준화 작업 및 암호화폐 허브 국가 입지를 놓고 치열한 경쟁이 나타날 전망
- PwC는 EU, 스위스, UAE, 독일, 일본 등이 새로운 암호화폐 투자 및 규제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고, 인도와 터키 등은 암호자산 금지 규정을 통해 상반된 선택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평가

[글로벌 암호자산 규제 개요]

Jurisdiction	Regulatory framework	AML / CTF*	Travel rule	Stablecoins (used for payments)
United States				
United Kingdom				
Australia				
Austria				
Bahamas				
Bahrain				
Canada				
Cayman Islands				
China (Mainland)				
Denmark				
Estonia				
France				
Germany				
Gibraltar				
Hong Kong				
Hungary				
India				
Italy				
Japan				

Legislation / Regulation in place
 Pending final legislation
 Process initiated or plans communicated
 Regulatory process not initiated
 The country prohibits cryptocurrencies

출처 : PwC, 'PwC Global Crypto Regulation Report 2023', 2022.12.

- PwC는 EU는 글로벌 권역 가운데 처음으로 포괄적 암호자산 규제인 MiCA* 도입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진입해 새로운 시장 건설에서 한 걸음 앞섰다고 평가
- * Markets in Crypto Assets Regulation : 유럽 집행위원회가 채택한 암호화폐 관련 규정으로 기존 금융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 암호화 자산에 대한 규제를 명시해 지난해 유럽 의회를 최종 통과함
- 국가별로는 바하마, 케이만군도, 지브롤터 등 조세회피처를 제외하고는 스위스와 일본이 규제 입법에서 주요 요소를 모두 완비한 것으로 나타났고 독일, 프랑스 등 EU 국가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이 규제 준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남
- 스위스는 규제가 가상 성숙했다는 평가 속에 2020년 기존 법과 디지털자산 규제 프레임워크를 통합해

투자자에게 규제 및 암호화 프로젝트에 대한 확신을 제공한다고 설명했고,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당국은 세계 최초로 가상자산에만 집중하는 규제 기관(VARA)*을 설립해 관심이 집중된다고 평가

* Virtual Assets Regulatory Authority : 두바이가 2022년 3월 발족한 가상자산 전문기관으로 경제적 독립, 책임 있는 참여, 진보적 혁신 등을 목적으로 UAE 전역 가상자산을 감독하며, 호환성 높은 규제 프레임워크 개발로 가상자산 글로벌 허브를 지향함

- 반면, 암호화폐를 전면 금지한 중국과 암호화폐의 결제 수단 사용을 금지한 인도, 터키 등은 암호화폐 프레임워크에 대한 논의 없이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 방지에 대한 접근만 시도
- 홍콩이 2022년 12월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 자금조달방지 조례 개정안을 통해 암호화폐 기업 라이선스 제도 도입과 소매 투자자의 암호화폐 거래를 허용해 암호화폐 아시아 허브를 겨냥한 움직임을 시작함
- PwC는 각국이 기존 금융 서비스 프레임워크에 디지털자산 도입을 위한 용어 정의*, 연구, 컨설팅, 입법에 나섰고, 이 때문에 진행 속도, 접근 방식, 적용 서비스 및 제품 등이 크게 세분됐다고 평가
- * EU는 모든 디지털자산을 새로운 형태의 금융상품으로 간주해 포괄적 규제를 채택했지만, 미국, 영국 등은 디지털자산의 경제적 기능에 따라 보다 상세한 정의와 구분을 채택함, 이 과정에서 디지털자산, 암호화 자산, 가상자산, 디지털 결제자산, 가상통화, 암호화폐 등 각국의 정의 용어가 매우 복잡해져 국제 협력의 장애로 작용

▶ (향후 방향) FSB, '동일 활동, 동일 위험, 동일 규제' 적용을 권고...규제 일관성과 지식공유 위한 협력 강조

- 글로벌 금융 규제에서 표준기관 역할을 하는 FSB*는 디지털자산이 가파르게 성장하면서 기존 금융 시스템과 상호 연결이 급증해 글로벌 금융에 대한 위험이 증가했다고 지적하고, 각국 규제 및 프레임워크는 '동일한 활동, 동일한 위험, 동일한 규제' 원칙에 기반할 것을 주문
- * Financial Stability Board :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관련 권고를 하는 국제기구로, 정부 금융 부처, 국제 표준단체 간 협력 조정과 규제, 감독 및 금융 부문 정책 개발 등의 역할을 수행
- FSB는 2022년 10월 암호자산 및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국제 규제에 대한 프레임워크 제안 및 권장 사항을 발표하고, 각국의 규정은 구현 가능성 측면에서 정책 표준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
- FSB는 제안에서 ▲기존 규제 범위와 권한에 대한 국경 간 격차 문제 ▲암호자산 관련 커스터디, 거래, 대출 위험 문제 ▲분산원장기술에 대한 광범위한 사용 등을 향후 해결할 주요 과제로 제시
- FSB는 각국에 디지털자산에 대해 기존 금융 규제와 유사한 규제 적용에 나설 것을 권고하고, 암호화폐 및 스테이블코인 전담 규제기관 설립과 규제 일관성 및 지식공유 확대를 위한 폭넓은 협력 체계 구축 등을 제안
- 규제 프레임워크는 발행자, 서비스 제공자, 거래소, 월렛 등에 대한 효과적인 거버넌스 및 위험 관리 체계, 데이터 수집, 저장, 보호 및 시기적절하고 정확한 보고를 위한 프로세스 구축 등을 포함하도록 권고
- 스테이블코인 규제는 상환권 보장, 안정화 메커니즘, 예비자산 구성 및 품질에 대한 명확한 공개를 통해 신뢰와 투명성을 유지하도록 했고, 독립적이고 정기적 감사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의 양과 예비자산의 가치 및 구성을 확인하도록 권고함
- FSB는 제안 권장 사항을 2023년 7월까지 확정할 방침이며, 2023년 상반기에 탈중앙화 금융과 금융 안정성 위험에 추가 규제 내용을 개발할 계획

▶ (이슈) 암호화폐 규제, 국가별 편차가 크게 존재...글로벌 규제 프레임워크 등장까지는 상당한 시간 필요

- **(미국)** 미국은 특유의 듀얼 बैं킹 시스템*으로 연방과 주 단위에서 각각 규제가 이뤄지며, 현재 주 단위 암호화폐 규제가 연방의회 및 백악관을 앞지른 것으로 평가
 - * Dual banking system : 국립은행과 주립은행이 서로 다른 수준의 정부에서 인가감독 되는 체계로 미 국립은행은 연방법에 따라 인가규제되며 연방기관 감독을 받지만, 주립은행은 주법에 따라 인가·규제되며, 해당 주의 금융기관에서 감독함
- 2022년 미 행정부는 디지털자산 및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친화적 입장을 담은 행정명령을 발표했지만, 디지털자산 규제 권한을 놓고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간 불투명성이 여전한
- 미 금융 규제기관 조율을 담당하는 금융안정감시협의회(FSOC)*는 바이든 행정명령 최종 보고서에서 미국에는 디지털자산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 프레임워크가 없다는 최종 결론을 도출해 난맥상을 노출
 - * 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 : 미 금융 시스템에 대한 위험 식별과 모니터링 권한을 보유한 연방 조직으로 재무부 장관이 의장을 수행하며, 2010년 설립됨
- 현재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는 의회, 규제기관, 주별로 관할권 경쟁이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
- **(영국)** 2022년 10월 하원이 기존 법률을 수정해 영국 재무성(HM Treasury)에 암호화폐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암호화폐 규제를 위한 틀을 마련했다는 평가
- 하원은 디지털결제 자산(Digital Settlement Assets)을 기존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 2000(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에 포함해 암호자산을 다른 금융자산과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했고, 이러한 내용을 새로 발의된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 2022에도 반영

[주요국의 암호자산 규제 동향]

국가	주요 동향	
호주	2021년 12월 디지털자산 규제 체계 수립에 합의	2022년 3월 디지털 자산 규제 목표 설정 완료
캐나다	2022년 11월 디지털자산 입법 검토 발표	스테이블코인과 CDBC에 대한 협의 착수
프랑스	통화 및 금융법에서 디지털자산 규제	MiCA 채택 이후 변경 예정
독일	은행법(KWG)과 증권법(WPLG)에서 디지털자산 규제	2013년부터 적용 중이며, MiCA 채택 후 변경 예정
스위스	2020년 기존 법률 개정해 디지털자산을 수용	최초 디지털자산 지침 발표로 규제 성숙도 높음
홍콩	2022년 암호자산에 대한 라이선스 제도 도입	조화된 규제를 통해 가상자산 글로벌 허브 지향
인도	암호화폐는 금지하고 분산원장기술만 수용	규제 프레임워크가 없고 CBDC만 추진
일본	암호자산 관련 규제를 보유하고 적극적 진흥 추진	스테이블코인과 웹3를 경제성장 핵심으로 지정
싱가포르	2022년 10월 암호자산 규제 협의문서 발표	시장 무결성을 위한 암호화폐 기업요구 사항 명시
대만	2021년 디지털부를 신설하고 보안토큰 발행 허용	웹 3를 주요 성장 산업으로 지정
터키	2021년 4월 결제에서 암호화폐 사용을 금지	규제 프레임워크가 없고 CBDC만 추진
두바이	세계 최고 가상자산 전담규제기관(VARA) 설립	글로벌 가상자산 허브로 자리매김을 목표

출처 : PwC, 'PwC Global Crypto Regulation Report 2023', 2022.12.. / 넥스텔리전스 재정리

- 2022년은 암호화폐 공간에 대한 신뢰가 깨진 한 해로 평가되며, 2023년에는 리스크 관리 및 거버넌스 개선 등 암호화폐 기업에 명확성을 요구하는 규제가 활동이 본격화될 전망
-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글로벌 표준 마련 및 협력 체계 구축이 크게 강조되고 있지만, 각국의 상황과 입장이 크게 달라 글로벌 규제 프레임워크 등장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

[출처]

- PwC, "PwC Global Crypto Regulation Report 2023", 2022.12.19.

블록체인 기술·정책·산업 동향

디지털산업본부 블록체인산업단 블록체인정책팀

[글로벌]

2023년 블록체인 영향력 건재...규제강화 및 웹3·보안기술 진화

- 2022년 암호화폐 시장 실패는 일부 경영자 일탈 지적, 블록체인·DLT 잠재력은 여전하다는 견해 제기
- 사기·해킹 취약점, 자기 결정권 강화된 블록체인 논의 시작...웹 3, 메타버스·NFT·DAO와 융합 가속 전망

블록체인 업계가 암호화폐의 가치 변동과 무관하게 블록체인은 2023년에도 ▲규제 개선 ▲웹 3 진화 ▲신원 시스템 개선 등 제도적·기술적 요인에 힘입어 산업계 전반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유지할 것으로 분석

▶ 2022년 암호화폐 시장 실패는 일부 경영자의 일탈 지적, 블록체인·DLT 잠재력은 여전하다는 견해 제기

- 2022년 암호화폐 시장은 2021년부터 지속된 비트코인의 가치 하락과 함께 암호화폐 거래소, 중개기관, 웹 3 앱의 보안 문제(사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연말에는 FTX의 갑작스런 파산으로 큰 충격을 받음
- 암호화폐가 예전 위치를 회복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지만, 문제가 있는 암호화폐 대부분이 걸러져 투자 환경이 개선됐고, 이를 기반으로 빠른 반등도 가능하다는 견해도 제기
- 또 2022년 암호화폐 시장 실패가 블록체인·분산원장 등 기반 기술의 한계가 아닌 일부 스타급 경영자들의 일탈로 일어난 결과라고 지적하고,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잠재력은 여전하다는 점을 강조
- 전통 금융기관을 비롯한 글로벌 IT 기업이 블록체인 기반 웹 3, 분산화, 토큰 경제, NFT, 메타버스에 대한 투자를 계속하고, 각국 중앙은행이 CBDC 출시를 계획대로 이행하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
- 이들은 암호화폐가 극도로 위험한 투자이며, 불투명한 운영으로 사기 위험도 크게 존재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인정하고, 2022년 교훈이 시장에 반영되어 규제 및 투명성이 강화될수록 블록체인의 가치도 동반 상승할 것으로 전망
- 기술 전문 미디어 인터레스팅 엔지니어링(Interesting Engineering)은 2023년에 블록체인이 더욱 주목받을 요인으로 ▲규제 개선 ▲웹 3 역할 증대 ▲신원 시스템 진화 ▲스테이블코인 투자 확대 ▲전통 금융기관의 시장 진입 등으로 제시

▶ (요인 1 : 규제강화) 2022년부터 강화 추세...웹 3 입법과 함께 자산 압수 등 법 집행 강화 전망

- 암호자산 규제는 2022년 초부터 강화 추세가 본격화됐고, 세계 각국 금융 당국은 암호자산의 수용과 확산이 금융 안정성을 위협할 것을 우려해 법정 화폐와 디지털 자산 간 규제 격차 해소에 집중
- 미국의 해외자산관리국(OFAC)*은 2021년 특별지정대상(SDN)**에 랜섬웨어 공격자에게 자금을 지원한 혐의를 받은 암호화폐 거래소를 처음으로 포함해 강력한 법 집행을 시작

*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 미 재무부 산하 금융 정보 및 집행 기관으로 미국의 국가 안보 및 외교 정책 목표를 위해 경제 무역 제재 관리 및 시행 역할을 수행. 가장 강력하지만 알려지지 않은 기관이란 평가를 받음

* 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 재무부가 테러 등 각종 사유로 미 시민과 영주권자의 사업 및 거래를 제한하는

조치로, SDN의 자산은 차단 및 압수될 수 있고, 미국 시민과 기업의 거래가 금지됨

- 2022년에 최대 다크넷 마켓플레이스였던 히드라(Hydra)*와 암호화폐 믹서*인 비트블렌더(Bitblender)와 토네이도 캐시(Tornado Cash) 제재에 나섰고, FTX 파산 이후 암호자산에 규제강화 요구가 거세짐에 따라 2023년에는 더욱 강력한 법 집행이 예상됨

* 암호화폐 등 금융서비스와 마약 밀매 등을 통한 자금세탁에 사용된 러시아 기반 다크웹 마켓플레이스로 2022년 4월 미국과 독일 당국에 의해 자산이 압수됐고, 폐쇄 전까지 가장 오래된 다크 웹 마켓플레이스였음

* cryptocurrency mixer : 암호화폐 거래 추적 회피를 목적으로 여러 종류의 암호화폐를 혼합해서 사용하는 믹싱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암호화폐 규제가 강화될수록 암호화폐 믹싱 서비스가 더 주목받을 것으로 전망됨

- 각국은 2023년에 각종 사기 행위에 악용되고 있는 웹 3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며, 고수익 보장을 강조하는 탈중앙화 금융(DeFi) 및 NFT도 주시할 방침으로 알려짐

- 일례로 일본은 웹 3 촉진을 위해 디지털 전환 전략*을 수립하고, 디지털청 산하에 웹 3 부서를 설립함

* 일본은 디지털 전환 전략을 통해 전담 기구로 디지털청을 설립하고, ▲2025년까지 행정 절차 98%를 디지털화 ▲2030년까지 5G 서비스 이용 98% ▲IT·DX 관련 교육 콘텐츠 정비 ▲디지털 인재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

▶ (요인 2 : 웹 3 역할 증대) 암호화폐와 결합해 P2P 거래로 진화...메타버스·NFT·DAO 등으로 확대 전망

- 인터넷은 등장 이후 지속적으로 발전해 트위터, 페이스북의 광범위한 사용을 지원한 웹 2를 지나 웹 3에 도달했고, 웹 3은 인터넷 공간에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호 향상을 목적으로 진화하고 있음

- 웹 3은 탈중앙화, 개방성, 사용자 중심 등의 개념을 중심으로 한 미래 인터넷을 의미하며, 분산을 통한 인터넷 독점 해소와 사용자의 데이터 제어권 보장을 핵심 가치로 제시

- 웹 3은 2022년 들어 사용자가 자신의 데이터를 제어하고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 특히 강조됐고, 블록체인 기반 탈중앙화와 암호화폐와 결합해 각종 비즈니스 P2P 거래를 지원함

- 웹 3은 블록체인, 시멘틱 웹, 데이터 마이닝, 머신러닝, 자연어 처리,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과 통합되는 추세를 보이며, 2023년에는 메타버스, NFT, DeFi, 탈중앙화 조직(DAO) 등과 융합이 가속화될 전망

*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s : 기존 창업자 중심 기업 구조 대신 스마트계약을 이용해 자동화되고 분산되도록 설계된 조직. 일각에서는 공유 은행 계좌가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로 설명

- 하지만 웹3의 분산화 특성으로 사이버범죄, 사기 등 범죄 추적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지난해부터 웹 3 기반 허위 사이트를 통해 피싱 사기가 증가해 적절한 규제 필요성이 증가함

▶ (요인 3 : 신원 시스템 진화) 블록체인, 사기·해킹에 취약점 노출...자기 결정권 강화된 블록체인 논의 시작

- 대다수 비즈니스와 커뮤니케이션이 디지털로 전환되면서, 디지털 ID 및 인증 보호의 중요성이 크게 증대됐지만, 현 신원시스템은 몇 가지 결함으로 오류 및 사기에 취약한 상태로 평가됨

- 신원 및 자산 확인에서 단일 지점을 제공하는 블록체인 기술이 기존 신원 시스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지낸 해 여러 사건에서 블록체인 역시 사기 및 해킹에 취약한 면을 노출함

- 정보 투명성은 블록체인의 최대 장점이지만, FTX와 같은 중앙 집중식 거래소(CEX)*는 투명성을 위장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추적도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남

* 투자자가 보유한 암호자산을 사고파는 데 사용하는 온라인 플랫폼 일종으로 안전한 거래를 목적으로 P2P 거래

대신 위해 중개자 및 제3자가 개입하는 방식의 거래소. 반대 개념으로 탈중앙화 거래소가 존재

- 문제 해결을 위해 블록체인과 웹 3의 융합을 통해 플랫폼 전반에서 사용자에게 개인정보와 디지털 정보에 대한 제어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이 논의됨
- 2023년 1월 터키 중앙은행은 CBDC 테스트 완료를 공개하고, 향후 '디지털 리라' 전자지갑 앱 접속 시스템에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신원' 기술을 활용할 방침이라고 언급

▶ (요인 4 : 전통 금융기관의 진입) 암호화폐 침체기에도 62%가 암호화폐 투자 확대...시장 진출 추진

- 월가를 중심으로 암호화폐가 다른 자산보다 위험하고, 합법적 사용이 가능한 앱도 많지 않아 투자 실행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전통 금융기관과 대형 IT 기업의 암호화폐 시장 진입이 계속됨
- 피델리티 디지털자산(Fidelity Digital Assets)이 2021년 1,000명 이상의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의 74%가 암호화폐에 투자할 계획으로 나타남
- 기관 투자자들의 암호화폐에 대한 적극적 투자 의사는 암호화폐 시장이 침체기에 진입한 2022년 하반기 코인베이스의 기관 투자자 조사에서도 유사한 흐름을 보임
- 코인베이스가 2022년 11월 미국 140명 기관 투자자를 상대로 한 '디지털 자산 전망 조사*'에서 2023년을 투자 적기로 판단한다는 답변과 함께 투자자 62%가 지난 1년간 암호화폐 투자를 늘렸고, 58%는 향후 3년간 투자를 늘릴 계획이라고 응답

* '2022 Institutional Investor Digital Assets Outlook Survey', 2022.11.22

▶ (요인 5 : 스테이블코인 투자 확대) 안정적 수요 증대로 스테이블코인 주목...등 활성화 정책도 추진

- 투자자들은 변동스러운 시기에 신뢰할 수 있는 자산에서 안전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 진다고 강조하고, 암호자산 가운데 가장 안정적인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질 전망
- 특히 일본 등 중앙은행 디지털통화(CBDC) 출시를 앞두고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고, 2023년은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됨
- 2022년 테라(TerraUSD) 붕괴로 스테이블코인 믿음에 큰 충격이 갔지만, 테라 붕괴가 지나친 이자 지급 등 과도한 비즈니스 때문이라는 분석 속에 보다 안정적인 스테이블코인이 주목받을 전망
- 스테이블코인 가운데 서클(Circle)이 발행한 USD Coin은 탄력성이 입증됐다는 평가 속에 스테이블코인 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 2022년 암호화폐 시장의 긴 침체기 진입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 시장은 2023년에 규제강화, 웹 3의 역할 증대, 스테이블코인의 활성화 등의 요인에 힘입어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전통 금융기관과 글로벌 IT 기업들 역시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를 유지하고 있으며, 적극적 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어 블록체인 시장은 2023년에 시장 성숙과 반등이 가능할 전망

[출처]

- Interesting Engineering, "Why blockchain will remain a big deal in 2023 and beyond", 2022.12.29.
- Ledger Insight, "Turkey launches CBDC pilot, introduces blockchain digital ID", 2023.01.03.

블록체인 기술·정책·산업 동향

디지털산업본부 블록체인산업단 블록체인정책팀

[일본]

日, 스테이블코인 유통 금지 해제...디지털자산 본격 수용 결정 평가

- 금융청, 스테이블코인 유통 금지 해제...31개 거래소에서 취급 시작되면 대대적 시장 변화 전망
- 일본은행 CBDC 일정 공개에 이어 한 달 만에 발표...일본 정부의 대대적 디지털자산 수용 결정이란 평가

일본 금융청(FSA)이 미 달러 등 법정 화폐와 연동되는 해외 스테이블코인의 유통 금지 조치를 해제할 방침을 정하고, 공개 의견 수집을 집행하고 있어, 일본 거래소의 스테이블코인 취급이 시작될 전망

▶ 금융청, 스테이블코인 유통금지 해제 결정...31개 거래소 스테이블코인 거래로 대대적인 시장 변화 전망

- 일본경제신문(Nikkei)은 최근 일본 금융청이 미국 달러 등 법정통화와 연동 기능을 제공하는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일본 유통금지 조치 해제를 결정했다고 보도
- 금융청은 예금 등 자산 보전 조치 및 송금 상한제 등을 조건으로 스테이블코인 취급을 허용할 방침이며, 이번 조치로 국제 송금의 속도 개선과 수수료 인하 효과 등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
- 코인각 등 외신은 금융청이 2022년 12월 26일부터 공개 의견 수집에 착수한 점에 주목해 스테이블코인 제한 해제에 대해 일본 정부 부처 및 관련 기관과 원만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평가
-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경우, 일본 현지의 31개 거래소에서 스테이블코인 거래가 시작되며, 일본 디지털자산 시장에 상당한 영향과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됨
- FTX* 붕괴 이후 침체기에 진입한 디지털자산 시장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큰 주목을 받고 있으며, 지난해 11월 일본은행(BoJ)의 중앙은행 디지털통화(CBDC) 추진 발표*과의 연관성에 주목하는 분위기
 - * 40조 원의 기업가치로 세계 2~3위 암호화폐 거래소로 평가됐으나, 불투명한 지배 구조와 유동성 위기로 2022년 11월 11일 134개 계열사와 함께 파산을 신청함
 - * BoJ는 CBDC 프로젝트를 은행과 공동으로 2024년까지 추진해 2026년 디지털 엔화 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
- 이번 조치가 BoJ의 CBDC 프로젝트 일정 공개와 불과 한 달 사이에 발표되어, 일본 정부와 의회가 디지털 자산 수요에 적극적으로 나선 확실한 징조라는 평가가 제기됨
- 지난해 5월 테라·루나 붕괴 직후 일본 당국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유통금지를 결정했고, 6월에 의회는 스테이블코인을 법정통화와 연동이 필요한 디지털 화폐로 규정한 법안을 통과시켜 규제를 정비함

- 일본 금융청이 스테이블코인 유통 금지조치를 해제해 31개 일본 거래소에서 취급이 시작될 전망이며, 일본은행의 CBDC 일정 공개와 함께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디지털자산 수용 전략으로 풀이됨
- 일본 금융청은 스테이블코인 거래 시작으로 자금세탁 방지에 대한 추가 법률이 필요하다고 밝힘

[출처]

- Coingeek, "Japan moving away from stablecoin restrictions in the new year", 2022.12.30.

블록체인 기술·정책·산업 동향

디지털산업본부 블록체인산업단 블록체인정책팀

[중국]

中, 암호화폐 금지 정책 불구 국가 주도 '디지털자산 거래소' 출범

- 2023년 1월 1일 디지털 자산거래소 출범...데이터 상업화 촉진 통해 중국 디지털 경제 확장 시도 평가
- 중앙위원회·국무원 지침에 따른 시장 활성화 정책 일환...디지털자산에 대한 규제 완화로 이어질 전망

중국이 2023년 1월 1일 암호화폐 금지 정책 고수에도 불구하고, 국가 주도로 NFT 등 디지털자산을 거래하는 '디지털자산 거래소'를 출범했고, 향후 NFT 재판매 허용 등으로 관련 규제를 지속 완화할 것으로 전망

▶ 중국, 2023년 1월 1일 디지털 자산거래소 출범...데이터의 상업화 촉진으로 디지털 경제 확장 시도 평가

- 중국 당국이 2023년 1월 1일 디지털 수집품으로 지칭하는 지적재산 및 NFT 거래 촉진을 목적으로 국가 주도의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을 출범시킴
- 이번 조치는 데이터를 토지, 자본 등 주요 생산요소로 간주하고, 상업적 규칙을 적용해 활성화를 꾀하는 것으로 중국의 디지털 경제를 더욱 확장하려는 시도로 풀이됨
- 플랫폼은 국영 기술거래 서비스 그룹인 중국 기술거래소(China Technology Exchange), 중국예술전시(Art Exhibitions China), 민간기업 후반 디지털(Huaban Digital Copyrights)이 공동 개발했고, 중국 자체 개발 블록체인인 중국문화보안체인(China Cultural Protection Chain)을 기반으로 디지털자산의 등록, 확인, 입금, 추적, 보호 등의 기능을 제공
- 중국 블록체인 업계는 미래의 저작권 및 디지털 제품 거래에서 충분히 검증된 메커니즘을 제공할 수 있는 점을 강조하며, 가치가 크다고 평가하고, 산업 활성화로 이어질 것을 기대
- 이번 결정은 2022년 12월 21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 내각이 발표한 지침에 의한 것으로, 지침은 데이터 시장의 권리 보호 및 거래 이익분배 등의 문제를 해결해 시장 활성화에 나설 것을 주문
- 중국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의 거래와 채굴은 엄격하게 금지하지만, 디지털 수집품은 가상 재산으로 분류해 전자상거래법에 의해 보호됨
- 하지만 디지털 수집품은 법정 화폐로만 거래할 수 있고, 재판매를 허용하지 않아 관련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아, 텐센트가 선보인 디지털 수집 플랫폼 환허(Huanhe)는 출범 1년 만인 2022년 7월 폐쇄됨

- 중국 당국이 국가 주도로 디지털자산을 거래하는 디지털자산 거래소를 2023년 1월 1일 출범시켜 중국 디지털 경제 확산에 나섰고, NFT 재판매 허용 등 추가 규제 완화로 이어질 전망
- 2022년 12월 공산당중앙위원회 지침에 따른 것으로 데이터를 중요 생산요소로 간주한 결정이란 분석

[출처]

- South China Morning Post, "China to launch national exchange for trading NFT-like digital assets despite cryptocurrency bans", 2023.12.30.

블록체인 기술·정책·산업 동향

디지털산업본부 블록체인산업단 블록체인정책팀

[미국]

美 국세청, 지난해 디지털자산 70억 달러 압수...전년 대비 2배 증가

- 범죄수사팀 중심으로 디지털자산 관련 강력 규제 적용...NFT·스테이블코인 등을 과세 대상에 포함
- 디지털자산 투명성 향상 위한 '과세공지' 업데이트...자체 디지털자산 전략 수립과 서비스 개선 활동 추진

미 국세청(IRS)이 연례 보고서에서 2022 회계연도에 70억 달러에 달하는 디지털 자산을 압수했다고 밝히고, 이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기록적인 액수라고 설명

▶ 범죄수사팀 중심으로 디지털자산 관련 강력 규제 적용...NFT·스테이블코인 등을 모두 과세 대상에 포함

- IRS는 2022년 디지털자산의 확산과 변동성 심화에 대해 범죄수사팀(criminal investigative division)을 중심으로 규정 준수 및 법 집행 강화에 나섰고, 2023년에도 이 같은 규제강화 기조를 이어갈 방침
- IRS는 지난해 기존 가상화폐에 대한 공지(Notice 2014-21)를 업데이트해 암호화폐 거래에 적용되는 세금 원칙을 명확히 했고, 새로운 규정에 따라 암호화폐 및 디지털자산에 대한 법 집행을 강화함
- IRS는 업데이트한 공지에서 2014년에 규정한 가상화폐 정의를 최근 주목받는 디지털자산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해석으로 변경했고, 이를 통해 NFT를 비롯한 스테이블코인 등을 모두 과세 대상으로 분류함
- 그 결과 2022 회계연도에 과세 관련 위법 행위에 대해 70억 달러에 달하는 암호화폐 등 디지털자산을 압수했다고 공개했고, 이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기록적 액수라고 설명
- IRS는 디지털자산에 대한 느슨한 접근과 규제가 급등하는 세금 격차에 크게 기여했다고 판단해 지속적인 규제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디지털자산 거래 보고양식과 질문 등을 변경
- 의회는 암호화폐 정보 보고 요구와 디지털자산 관련 중개인을 명확하게 정의한 새 법률 제정을 나섬
- IRS는 2023년에 디지털자산 모니터링과 규정 준수 활동을 강화할 방침으로, 현재 전담팀을 구성했고, 전담팀을 통해 디지털자산 모니터링 및 디지털자산 조사 분석 도구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
- 이와 별도로 내부적으로 '디지털자산 프로젝트'를 추진해 기관의 디지털자산 전략을 수립하고, 세부 비즈니스 단위팀과 공동으로 고객 서비스 개선을 위한 데이터 및 기술 프로토콜 개발을 추진할 방침

- 미 국세청은 지난해 가상화폐에 대한 정의를 변경해 NFT, 스테이블코인 등을 모두 가상화폐 과세 대상에 포함해 규정을 강화했고, 그 결과 법 위반에 대한 압류 금액이 전년 2배 이상 증가함
- 국세청은 내부적으로 디지털자산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서비스 개선과 법 집행 능력 강화를 추진

[출처]

- BloombergTax, "Looking to 2023, IRS Cryptocurrency Enforcement Is Just Beginning", 2023.12.30.

글로벌 블록체인 기술·정책·산업 동향

Global Blockchain Tech, Policy & Industry Trends

블록체인 기술·정책·산업

CONTENTS

1. WEF. 2023년 웹3 부상..블록체인 채택 등으로 향후 10년 성장 전망
2. FSB, 암호자산 프레임워크 의견 공개..강력 규제와 맞춤형 규제 대립
3. 인도네시아, 암호화폐 개혁 박차..규제기관 변경·거래소 설립 발표
4. 英 영란은행, CBDC 월렛 시범 사업..20개 업체 지원해 관심 집중
5. 부테린, 올해 이더리움 확장성 대폭 개선..EIP-4844 본격화 전망

블록체인 기술·정책·산업 동향

디지털산업본부 블록체인산업단 블록체인정책팀

[글로벌]

WEF. 2023년 웹3 부상...블록체인 채택 등으로 향후 10년 성장 전망

- WEF, 2023년에 웹 3를 미래 인터넷으로 수용하는 추세 강화 전망, 향후 10년간 고성장 예측
- 디지털 자산 및 암호자산 규제가 핵심 변수...미국·일본, 선제적 규제 정비로 웹 3 트렌드 주도 전망

WEF가 2023 연례회의에서 올해 웹 3가 큰 주목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자산의 토큰화와 블록체인 기술 활용이 크게 증가해 향후 10년간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

▶ WEF, 2023년에 웹 3를 미래 인터넷으로 수용하는 추세 강화 전망, 향후 10년간 고성장 예측

- 세계 경제포럼(WEF)이 2023년 연례회의*에서 올해 웹 3가 블록체인 기반 새로운 기술 채택에 힘입어 향후 10년간 이어질 성장세가 나타나고, 미래 인터넷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크게 강해질 것으로 전망
- * World Economic Forum Annual Meeting, <https://www.weforum.org/events/world-economic-forum-annual-meeting-2023>
- WEF는 웹 3를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구축자와 사용자가 소유한 분산형 인터넷으로 정의*하고, 리서치 전문 기업 이머전리서치 자료*를 인용해 글로벌 웹 3 시장이 2021년에 32억 달러 규모를 형성했다고 진단
- * it is a decentralized internet, owned by builders and users, based on blockchain.
- * Emergen Research, 'Web 3.0 Market Size, Share, Trends, By Type, Blockchain Type By Organization Size, By Application, By Vertical, and By Region Forecast to 2030', 2022.5
- 이머전리서치는 지난해 6월 글로벌 웹 3 시장이 32억 달러에 달하는 시장을 형성했고, 2030년에 815억 달러 규모로 성장해, 연평균 43.7%의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향후 10년간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 동인으로 ▲투명성 및 데이터 보안 요구 향상 ▲NFT 결제 및 디지털 컬렉션 확대 ▲글로벌 기업의 웹 3 투자 증대 등을
- WEF는 2023년 웹 3 시장 평가에서 ▲정책환경 변화(Changing policy landscape) ▲분산형 소셜미디어 부상(Rise of decentralized social media) ▲자산의 토큰화 증가(Increased tokenization of assets) ▲주류 시장 진입(Expansion of mainstream use cases) 등을 올해 주요 이슈로 제시

▶ (이슈① 정책환경 변화) 암호자산 입법화가 변수...미국·일본, 선제적 규제 정비로 웹 3 트렌드 주도 전망

- WEF는 세계 각국이 2022년부터 웹 3 관련 규제 및 산업 진흥에 대한 정책적 접근을 시작해, 올해 들어 구체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웹 3를 둘러싼 논의가 2023년 핵심 트렌드로 부상할 것으로 예측
- 미국과 일본을 WEF 웹 3 관련 정책환경 변화에서 주목할 국가로 지목하고, 이들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웹 3 정책이 다수 등장할 수 있다고 전망
-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2022년 3월 발표한 '디지털 자산의 책임 있는 개발에 관한 행정명령*과 미 의회의 암호화폐 입법화가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정책 프레임워크로 이어져 웹 3 시장 환경을 크게 바꿀 전망
- * Executive Order on Ensuring Responsible Development of Digital Assets

- 미 정부는 행정명령에서 재무부 등 각 행정부처에 디지털 자산의 기회요인(①달러 패권 유지 수단 ②금융 접근성 확대 ③연관 산업 육성)과 위험요인(①스테이블코인 ②투자자 보호 ③환경)에 관한 연구를 지시
- 백악관은 2022년 9월 16일 그동안 연구 성과를 종합해 행정명령에 대한 팩트시트(Fact Sheet)*를 발표하고, 여기에서 디지털 자산에 대한 포괄적 프레임워크를 제시
 - * White House, 'FACT SHEET: White House Releases First-Ever Comprehensive Framework for Responsible Development of Digital Assets', 2022.9.15
- 백악관은 팩트시트에서 ▲소비자·투자자·기업 보호 ▲안전하고 저렴한 금융서비스 이용 촉진 ▲금융 안정성 강화 ▲책임 있는 혁신 ▲글로벌 금융 리더십 및 경쟁력 강화 ▲불법금융 근절 ▲CBDC 모색을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정부 방침으로 제시
-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정부 입장 공개는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에 대한 합리적 규제에 대한 기대를 높였고, 이러한 기대감은 웹 3 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 미국 유명 미디어 폴리τικο(Politico)*는 웹 3로 대표되는 차세대 인터넷 혁신을 위해서는 암호자산에 대한 규제가 필수라 강조하고, 합리적 규제 프레임워크가 작동하는 웹 3 생태계는 차세대 기술 혁명 경쟁에서 미국을 선도적 위치로 이끌 수 있다고 긍정 평가
 - * Politico, 'Steadying the crypto ship', 2022.12.21
- 매켄지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통해 웹 3는 탈중개화(disintermediation)를 핵심요소로 한 디지털 애플리케이션 활성화를 통해 비즈니스 모델의 패러다임 이동을 가져올 수 있다고 평가
- 바이든 대통령 행정명령에 이어 캘리포니아주 케빈 뉴섬(Gavin Newsom) 주지사는 2022년 5월 책임 있는 웹 3 혁신과 소비자 보호 촉진을 위한 블록체인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해 빠른 확산이 나타남
- 뉴섬 주지사는 행정명령에서 7대 우선순위*를 제시하고,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기반으로 디지털 자산 관련 연방 규칙 및 지침과 조화를 이루고 산업 육성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
 - * 캘리포니아주 블록체인 행정명령은 ▲블록체인 기업의 투명하고 일관된 비즈니스 환경 구현 ▲암호자산 규제 접근방법 개발 ▲블록체인 앱 및 벤처 기업 지원 ▲암호자산 규제에 대한 법적 권한 부여 ▲규제 명확성 보장 ▲공공 서비스에 블록체인 기술 도입 ▲암호자산 및 블록체인 교육 기회 강화를 7대 우선순위로 제시
- **(일본)** 경제산업성(METI)*은 2022년 7월 15일 웹 3 전담 정책실(Web 3 Policy Office) 신설해 산업 금융·세무·기업시스템 담당 부서와 미디어 및 콘텐츠·스포츠·패션·엔터테인먼트 담당 부서를 통합한다고 발표**
 - *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 * METI, 'Web 3.0 Policy Office Established in the Minister's Secretariat as a Cross-Departmental Internal Organization'
- METI는 웹 3를 새로운 가치창출을 위해 암호자산, NFT 등 토큰 사용과 데이터의 관리 및 사용을 지원하는 블록체인 관련 기술로 정의하고, 웹 3 창업가들이 일본을 떠나는 상황*을 감안해 일본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가속화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
 - * 2020년 이후 일본 웹 3 창업가들은 개인소득세와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 두바이 이주를 선호해 사회문제로 대두됨
- 2022년 들어 일본은 웹 3와 메타버스 결합이 새 트렌드로 두드러져, 도쿄대학이 고등학생부터 일반인이 참여하는 메타버스 연구 프로그램을 발표했고, 니가타 NSG 칼리지 산하 29개 무역학교가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은둔자(히키코모리) 가상 지원실을 개설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임
- 일본 정부뿐 아니라 지방 도시도 웹 3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지원과 중장기 계획 수립에 나섬

- 일본 규슈의 대표 도시 후쿠오카가 일본 최초의 웹 3 도시를 선언하고, 블록체인 및 차세대 인터넷 시장을 육성하는 웹3 허브 도시를 지향한다는 비전을 공개함
- 후쿠오카는 일본 남부 대표 도시로, 일본에서 두 번째로 큰 항구도시로, 아스타 저팬 랩을 비롯해 MS 저팬, 아마존 저팬 등 45개 이상의 대형 기업과 협력을 통해 웹 3 도시로 발돋움할 계획
- 일본의 적극적인 웹 3 정책 추진은 키시다 정권의 친 웹 3 정책 기조와 암호화폐 침체기에 철저한 규제를 통한 리스크 관리 성공이 주요인으로 평가됨
- 일본은 2014년 전 세계 비트코인 거래량의 70~80%를 차지했으나, 비트코인 해킹으로 파산한 마운트 곱스 이후 암호자산 규제를 대폭 강화했고, 지난해 5월 테라·루나 붕괴 직후 스테이블코인 유통을 금지하는 등 법체계가 잘 갖춰졌다는 평가
- 규제에 대한 자신감으로 일본은 지난해 11월 일본은행(BoJ)이 CBDC 추진을 발표했고, 한 달 뒤에는 일본 금융청이 스테이블코인 규제 완화에 나서 웹 3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자산 수용이 급진전함
- 올해 일본은 스테이블코인 유통 금지가 전격 해제되어 일본 31개 거래소에서 거래가 시작되며, 웹 3 기반 다양한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 출시가 뒤따라 웹 3 및 디지털 자산에 큰 변화를 가져올 전망

▶ **(이슈② 분산형 소셜미디어 부상) 2023년 웹 3는 탈중앙화가 핵심, 분산형 SNS에 대한 관심 집중**

- WEF는 2023년 주목할 웹 3의 핵심 기능을 탈중앙화라고 평가하고, 현재의 빅테크 기업과 같은 중간 관리자가 없는 상황을 선호하는 경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전망
- 작년에 트위터 대안으로 큰 주목을 받는 마스토돈(Mastodon)*과 같은 분산형 소셜미디어의 인가가 2023년에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
* 2016년 트위터 대항마로 오픈소스 분산형 플랫폼 기반 소셜미디어로 설립됐고,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뒤 1주일 만에 가입자가 50만 명 증가함,
- WEF는 마스토돈이 블록체인 기반은 아니지만, 분산화 및 연합모델에서 작동해 렌즈 프로토콜(Lens Protocol)이나 마인즈(Minds)와 같은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의 부각을 앞당길 수 있다고 평가
- **(마스토돈)** 30세의 젊은 설립자 오이겐 로흐코(Eugen Rochko)와 독일 비영리 단체가 공동개발한 오픈소스 마이크로블로깅 서비스로,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이후 월간 활성 사용자(MAU)가 100만 명을 돌파
- 2억 2,300만 명의 일일 활성 사용자(DAU)를 기록하는 트위터와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이지만, 특정 단일 기업이 아닌 다양한 사용자가 서버를 호스팅하는 연합(federated) 네트워크란 점에서 주목을 끄
- 마스토돈 사용자는 콘텐츠 정책이 각기 다른 서버에서 자신이 가입을 희망하는 서버를 선택할 수 있고, 서버 네트워크가 분산화되어 있어 개인정보 판매를 통한 수익화 우려가 적다는 장점이 존재
- **(렌즈 프로토콜)** 이더리움 기반 가상자산 투자 플랫폼인 에이브(Aave)가 투자했고,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이 새로운 소셜미디어로 열성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인지도가 높아짐
- **(파캐스터)** 코인베이스 임원 출신인 단 로메로(Dan Romero)가 2020년 설립한 분산형 소셜 네트워크로

사용자 신원만 온체인에 유지하고, 나머지 프로필, 게시물, 팔로우 등은 파캐스터 허브라는 전문 서버에 오프체인 형태로 저장해 웹 2와 웹 3의 장점을 최대한 아키텍처라는 평가를 받음

- **(마인즈)** 웹 2와 웹 3의 접점에 있는 서비스라는 평가 속에, 2022년 9월 미국에서 36만 명 순 방문자를 기록했고, 페이스북 등 대형 SNS 사용자들이 채널에 문제가 발생 시 대체 플랫폼으로 관심을 끌

▶ **(이슈③ 자산의 토큰화) 자산을 블록체인에 디지털로 표시, 금융 등 산업 전 분야에 혁명적 변화 전망**

- 토큰화를 통해 거의 모든 실제 자산이 블록체인이 디지털로 표시될 수 있어, 토큰화 사용 증대로 금융 등 대부분 산업에 혁명적 변화를 가져올 잠재력이 있다고 평가
- 올해 들어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Goldman Sachs)와 글로벌 자산운용사 블랙록(Blackrock) 등 대형 금융 기업들이 토큰화 가능성 모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토큰화가 크게 진전될 것으로 전망
- 이런 추세가 금융 시장뿐 아니라 부동산, 엔터테인먼트 등 디지털 전환이 가능한 자산을 보유한 산업에도 확산하여 큰 변화를 이끌어 낼 것으로 예측

▶ **(이슈④ 주류 시장 진입) 시장 관심 증대와 기술 성숙으로 주류 시장 진입, 스타벅스를 성공 모델로 제시**

- WEF는 앞서 제시한 정책환경의 변화, 분산형 소셜미디어의 부상, 자산의 토큰화 증가 등의 트렌드를 통해 웹 3가 2023년에 주류 시장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
- 또 기술 성숙이 동시에 나타나 현재 일부 얼리 어답터를 만족시키는 수준을 뛰어넘어 구체적인 사용 사례가 지속 등장할 것이라고 설명
- 작년에 NFT 기반 보상 프로그램인 스타벅스 오디세이(Starbucks Odyssey)*를 발표한 스타벅스를 웹 3를 조기 수용한 대표적인 기업으로 제시
 - * 스타벅스 오디세이는 미지의 세계로 긴 여정을 시작한다는 의미로, 웹 3와 NFT를 이용해 기존 별 적립 프로그램을 디지털 스탬프 수집 및 오디세이 포인트 적립 등 디지털 영역으로 확장함
- 전통기업 외에 헬륨(Helium)*과 같은 전 세계 누구나 접속 가능한 IoT를 제공하는 분산형 핫스팟 네트워크도 큰 주목을 받을 것으로 전망
 - * IoT용 P2P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개발된 프로젝트로, 독자적인 라우터 보급과 블록체인 분산성을 결합해 사용자가 무선 IoT 네트워크를 소유하고 관리할 수 있음

- WEF가 2023년을 웹 3가 널리 확산되고 대중화되는 원년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정책환경의 변화, 분산형 소셜미디어의 확산, 자산의 토큰화 진전 등을 주요 이슈로 제시
-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디지털 자산 규제 정비 및 암호화폐 입법 추진에 나서 암호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명확성이 개선되고, 시장 환경 개선이 웹 3 확산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

[출처]

- WEF, "Going mainstream: four Web3 developments to watch in 2023", 2023.01.04.
- Emergen Research, 'Web 3.0 Market Size, Share, By Vertical, By Region Forecast to 2030', 2022.5
- White House, "Executive Order on Ensuring Responsible Development of Digital Assets", 2022.03
- White House, 'FACT SHEET: White House Releases First-Ever Comprehensive Framework for Responsible Development of Digital Assets', 2022.9.15

블록체인 기술·정책·산업 동향

디지털산업본부 블록체인산업단 블록체인정책팀

[글로벌]

FSB, 암호자산 프레임워크에 대한 의견 공개...강력 규제와 맞춤 규제 대립

- 금융협회 및 은행, FSB 권고를 대체로 지지...암호자산 제품 및 서비스 정의 및 규제 원칙에 일부 이견
- 블록체인 및 암호자산 업계, 기존 금융 규제 답습 지적...암호자산의 기회창출 잠재력 훼손을 우려

금융 국제표준 기구 금융안정위원회(FSB)의 암호자산 프레임워크에 대한 의견 수렴에서 전통 금융기관 및 은행은 동일행위·동일위험·동일규제 도입을 지지했고, 바이낸스 등 친(親) 암호화폐 기업은 암호자산 특성에 대한 고려 없는 일괄적인 규제가 블록체인 이점을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

▶ FSB, 암호자산 규제 프레임워크 권고 발표 후 의견 수렴 진행...2023년 7월 최종 권고안 발표 예정

- 글로벌 금융 규제에서 표준기관 역할을 하는 FSB*는 2022년 10월 암호자산은 내포하고 있는 위험에 상응하는 규제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암호자산에 대한 글로벌 규제 프레임워크를 발표
 - * Financial Stability Board :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관련 권고를 하는 국제기구로, 정부 금융 부처, 국제 표준단체 간 협력 조정과 규제, 감독 및 금융 부문 정책 개발 등의 역할을 수행
- FSB의 규제 프레임워크는 ▲암호자산에 대한 활동, 규제, 감독, 접근 등에서 일관성과 포괄성을 촉진하고 국제 협력, 조정, 정보 공유를 강화를 위한 권고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의 규제, 감독, 감시를 통한 금융 안정성 위협 대처를 위한 상위 레벨 권고로 구성
- FSB는 규제 포괄성 촉진 및 국제 협력 강화를 위해 각국이 '동일활동, 동일위험, 동일규제'라는 원칙 수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시장 규제 관련 권고를 9가지로 제시
- FSB는 각국에 디지털 자산에 대해 기존 금융 규제와 유사한 규제 적용에 나설 것을 권고하고, 암호화폐 및 스테이블코인 전담 규제기관 설립과 규제 일관성 및 지식공유 확대를 위한 폭넓은 협력 체계 구축 등을 제안
- 규제 프레임워크는 발행자, 서비스 제공자, 거래소, 월렛 등에 대한 효과적인 거버넌스 및 위험 관리 체계, 데이터 수집, 저장, 보호 및 시기적절하고 정확한 보고를 위한 프로세스 구축 등을 포함하도록 권고

[FSB 9대 권고 사항]

구분	내용	비고
1	당국은 암호자산 활동 및 시장을 적절하게 규제할 수 있는 권한, 도구, 적정 자원을 보유	
2	당국은 암호자산 및 서비스 제공자에게 동일위험, 동일규제를 적용	
3	당국은 효율적 규제와 감독 결과 일관성을 위한 국내외 협력 및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	
4	암호자산 발행자와 서비스 제공기업에 포괄적인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마련과 공개 요구	적절한 경우
5	암호자산 발행자와 서비스 제공기업에 효과적인 리스크관리 프레임워크 구축 요구	적절한 경우
6	암호자산 발행자와 서비스 제공기업에 핵심 인프라에 대한 보고 프레임워크 구축 요구	해당하는 경우
7	암호자산 발행자와 서비스 제공기업에 명확·투명한 정보를 공개 요구(고객·이해관계자 대상)	
8	당국은 암호자산 생태계뿐 아니라 더 넓은 금융시스템 간 상호연결성을 식별하고 모니터링	
9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자에게 다양한 위험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규제, 감독을 적용	

출처 : FSB, 'Regulation, Supervision and Oversight of Crypto-Asset Activities and Markets: Consultative report', 2022.10.11

- FSB는 규제 프레임워크 권고 직후, 주요 국제기구, 민간기업, 비영리 단체 등을 대상으로 15개 항목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통해 공개의견 수렴에 나섰고, 48개 기업이 의견을 제출
- FSB는 2023년 1월 4일 공개의견 수렴 결과를 공개하고, 피드백 반영 등을 거쳐 오는 2023년 7월 최종 권고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발표

▶ (금융 협회 및 은행) FSB 권고안을 대체로 지지...암호자산 제품 및 서비스 정의 및 규제 원칙은 이견

- 주요 금융협회와 은행은 FSB의 규제 방향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다양한 암호자산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정의가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규제 핵심 원칙인 '동일활동, 동일위험, 동일규제'에 대해서는 각기 입장이 엇갈림
- 미국은행가협회, 스탠다드차타드은행 등은 동일활동, 동일위험, 동일규제가 규제 출발점으로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평가했지만, 미 상공회의소는 해당 원칙이 암호자산의 고유한 특성에 맞는 규제 요구사항 도출 및 개발에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
- FSB 규제 제안이 포괄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지만,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금융 안정성에 지나치게 매몰되어 있다고 평가하고 다양한 위험을 모두 고려한 포괄성 확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

[금융 협회 및 은행의 FSB 제안에 대한 의견]

기구	내용	비고
ACI금융시장협회 (ACI FMA)	FSB 제안은 충분히 포괄적이지만, 암호화폐와 다른 디지털 자산 유형 구분이 중요하며, 규제는 위험, 크기, 복잡성, 시스템 중요성에 비례해야 하며, 암호자산 발행자와 서비스 제공자의 혁신을 방해하지 않아야 함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동의
대체투자운용협회 (AIMA)	FSB가 제안한 동일활동, 동일위험, 동일규제 원칙을 지지하지만, 규제가 암호자산의 새로운 가능성을 고려하고, 관련 기술의 잠재적 이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절하고 비례적인 방식으로 적용되어야 함	규제가 암호자산 생태계의 다양성 반영 필요
미국은행가협회 (ABA)	FSB의 두 가지 권고 사항을 모두 지지하지만, 다양한 암호자산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부족한 상태라고 지적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활동 기반 접근 방식 도입을 조언	권고에서 더 강하고 긍정적 용어 사용을 주문
캐나다은행가협회 (CBA)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계약을 포함한 암호자산 활동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 감독, 개발에 대한 FSB 권고를 지지하며, 암호자산 참가자에 대한 규제가 은행에 지나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우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	동일활동, 동일위험, 동일규제 원칙을 지지
은행정책기구 (BPI)	FSB의 암호자산 및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지지하며, 규제가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 자금조달 방지 표준과 일치시키는 방식의 규제를 제안. 관리 프레임워크가 은행 조직을 차별한다고 지적하고 은행의 효율성 고려를 요구	범정부적 접근이 책임있는 혁신촉진
Sella Banca (이탈리아 은행)	FSB 제안이 포괄적이지만, 국제 협력 의무 부여와 미준수 국가에 대한 처벌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글로벌 규제의 일관성 촉진을 위해 EU의 MiCA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분류법 사용을 제안	스테이블코인의 세부적 정의 필요
스탠다드차타드 (Standard Chartered)	동일규제에서 규제 경계를 확장해야 하고, 이번 권고가 재정 안정성 문제에 초점을 맞췄지만, 규제 접근 방식은 포괄적이어야 한다고 지적했고, G20 등과의 협력을 통해 완전한 국제 조정이 중요하다고 강조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명확하고 균일한 분류가 필요
영국 금융 (UK Finance)	FSB의 동일활동, 동일위험, 동일규제는 영국 당국이 선택한 접근방식으로, 경쟁과 혁신을 가능케 하는 기술 중립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라 평가했고, DAP 및 NFT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미래 지향적 접근이라고 조언	규제가 암호자산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필요
미 상공회의소	동일활동, 동일위험, 동일규제 원칙은 암호자산의 고유한 특성에 맞는 규제 요구사항 개발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관련 의도를 상세히 설명할 것을 제안.	FSB에 비용편익분석과 비례 원칙 준수를 제안

▶ (블록체인 및 암호자산 기업) 기존 금융 규제 답습 지적...암호자산의 기회창출 잠재력 훼손을 우려

- 블록체인 및 암호자산 기업은 FSB의 규제 제안에 대해 기존 금융 규제 접근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 암호자산의 새로운 기회창출 잠재력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우려
- 동일활동, 동일위험, 동일규제 원칙은 새로운 위험 평가나 규제 패러다임 변화에서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고, 상황에 따른 맞춤형 규제가 현실적이라고 제시
- 또 모든 암호자산에 대한 포괄적 적용 역시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하고, DeFi 프로토콜의 경우 법적 구성 행위가 없어 규제 적용이 불가능하고, 순수 블록체인 코드 개발은 법적 간섭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
- 개인 연구자 자격으로 FSB 피드백 요청을 받은 영국 러프버러 대학 알리스테어 밀론 교수는 동일규제 제안은 행위 및 위험에 대한 양적·질적 비교가 힘들어 공정하게 적용하기 힘들다는 의견과 함께 FSB 제안이 실제 집행 측면에서 불충분하다는 의견을 제출

[블록체인·암호자산 관련 협회 및 기업의 FSB 제안에 대한 의견]

기구	내용	비고
암호자산 개발협회 (ADAN)	동일활동 동일위험, 동일규제 원칙은 새로운 위험 평가나 규제 패러다임 변화에서 매우 신중하게 적용해야 하며,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의 규제는 해석의 여지가 많아 세부 정의가 필요함	스테이블코인 가치 제안과 기회를 약화시킬 우려 제기
바이낸스 퍼블릭 (Binance Public)	동일활동 동일위험, 동일규제 원칙은 암호화가 전통 금융산업과 비교해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제시한다고 강조한 FSB의 조사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상황에 맞는 맞춤형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	스테이블코인 핵심 기능 목록을 더 세분해서 정의
빗소 (Bitso)	암호자산간 구분이 불분명해 암호경제의 잠재력을 차단할 수 있으며, 추가 분류 체계 채택이 필요하며, 국경을 넘는 규제 협력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 명확한 원칙에 기반한 효과적 협력이 신속히 구현되어야 함	DeFi 프로토콜은 법적 구성행위가 없음
카르다노 재단 (Cardano Foundation a)	제안의 금융 안정성이 기존 기준을 따르고 있어 차별화가 이뤄지지 않으며, 암호화 자산에 대한 개념을 채택해 규정할 필요가 있고, 요구사항 역시 기존의 것과 유사해 암호자산에 대한 섬세한 접근이 필요	암호자산의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용어 사용
코인베이스 (Coinbase)	FSB 권장 사항이 모든 유형의 암호자산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견해에 동의하지 않고, 순수한 블록체인 코드 개발에는 규제 간섭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규제 격차 부문에서 당국의 명확하고 실행가능한 정의 제공이 필요	암호화폐의 기능에 따른 시스템 위험 우려는 시기상조
유럽 블록체인 (BC4EU)	BC4EU는 FSB 권장 사항이 암호자산 위험을 비례적 방식으로 관리할 의향이 있다는 점을 환영하며, 이를 통해 시장 발전과 혁신을 저해하지 않을 수 있다고 평가했고, 암호화폐 분류는 제품 특성을 기반으로 보다 세분화되고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	암호자산 분류에 균일하고 광범위한 표준 적용 필요
알리스테어 밀론 (러프버러대 교수)	FSB가 규제 원칙으로 제시한 동일활동, 동일위험, 동일규제가 양적, 질적 비교의 문 데 등으로 공정하게 적용하기 불가능하며, FSB 제안도 실질적 집행 관점에서 불충분하다고 지적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동의하지 않음

출처 : FSB, 'Public responses to FSB's Proposed Framework for International Regulation of Crypto-asset Activities', 2022.10.04

- FSB 규제 프레임워크 의견 수렴에서 금융 협회 및 은행은 FSB 권고안을 대체로 지지하는 입장이지만, 다양한 암호화폐 제품 및 서비스 정의가 부족하고 동일규제 적용이 부적절하다는 의견
- 블록체인 및 암호자산 기업은 FSB의 권고가 기존 금융 규제를 적용해 새로운 위험 평가 및 패러다임 변화에 부적절하고, 블록체인과 암호자산의 시장 창출 잠재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

[출처]

- Pymnts, "Traditional Finance Firms Say FSB Should Pursue Tough Crypto Rules", 2023.01.04.

블록체인 기술·정책·산업 동향

디지털산업본부 블록체인산업단 블록체인정책팀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암호화폐 개혁 박차...규제기관 변경·거래소 설립 발표

- 지난해 비준한 새 법안 통해 적극적 개혁 추진...암호화폐 수용과 대국민 서비스 강화를 목표로 제시
- 암호화폐 규제기관을 한시적으로 금융감독청으로 변경...적극적 개혁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

인도네시아가 지난해 연말 비준한 금융 법안(P2SK)을 기반으로 암호화폐 규제기관 변경, 국가 주도 암호화폐 거래소 설립, CBDC 도입 등을 발표하고, 이를 통한 암호화폐 수용과 혁신 강화에 나섬

▶ 인도네시아, 새 법안 통해 암호화폐 개혁에 박차...규제기관 변경, 거래소 설립, CBDC 도입 등을 추진

- 인도네시아 당국이 암호화폐 전면적인 규제 개혁 추진에 나서 국가 암호화폐 거래소 설립,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 도입을 공식 추진한다고 발표
- 지난 2022년 12월 15일 인도네시아 하원은 '금융개발 및 강화법안(P2SK, Pengembangan dan Penguatan Sektor Keuangan)'을 비준했고, 동 법에서 17개 금융 관련 규제를 대폭 변경함
- 새 규정은 암호화폐 규제기관을 기존 상품선물거래규제청(Bappebti)*에서 향후 2년 간 금융감독청(FSA, Financial Services Authority)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김
 - * 상품선물거래규제청은 총 393개 암호화폐 거래를 허용했고, 암호자산 과세 적용 등의 성과를 거둠
- 당국은 암호화폐 규제기관 변경은 인도네시아 암호화폐 수용을 촉진하고, 국민에게 관련 서비스 제공을 앞당기기 위한 것으로 본격적인 개혁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
- 이번에 CBDC와 국가 암호화폐 거래소 도입이 구체적으로 명시됐고, 이번 법 논의에 법무부, 재무부, 투자조정위원회,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부 등 정부 부처가 참여해 폭넓은 합의가 이뤄졌다는 평가
- 인도네시아 은행이 지난해 12월 디지털 루피아(rupiah) 파일럿 디자인을 공개한 데 이어, 이번 조치로 CBDC 도입이 구체화하여 디지털 루피아 상용화가 급진전하고 있다는 평가
- 인도네시아 당국은 2022년 암호화폐 투자자가 1,600만 명에 달해 2021년 1,120만 명에서 지속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암호화폐 규제 및 과세 강화를 위해 국가 암호화폐 거래소 설립을 추진
- 인도네시아 외에 러시아도 국가 암호화폐 거래소 출범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짐

- 인도네시아 당국이 2023년 들어 적극적인 암호화폐 개혁에 나서, ▲암호화폐 규제기관 변경 ▲국가 암호화폐 거래소 설립 ▲디지털 루피아 도입 등을 추진함
- 인도네시아는 꾸준히 증가하는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투자자 과세 강화를 위해 암호화폐 거래소 설립에 나섰고, 러시아도 유사한 조치 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짐

[출처]

- cryptoslate, "Indonesia to set up cryptocurrency exchange to reform crypto regulation", 2023.01.04.

블록체인 기술·정책·산업 동향

디지털산업본부 블록체인산업단 블록체인정책팀

[영국]

英 영란은행, CBDC 월렛 시범사업..20개 업체 지원해 관심 집중

- 영란은행, CBDC 결제사례 확산과 민간 앱 혁신 위한 시범사업 착수...20만 파운드 예산에 5개월 일정
- 1월 중 사업자 선정 방침, 기존 금융과 동일한 보안 보증과 온오프라인 동일 서비스 제공을 최우선 고려

영국 영란은행(BOE)이 추진하는 CBDC 커스터디 월렛 개념 증명 프로젝트에 20개 업체가 지원해 큰 주목을 받고 있으며, BOE는 기존 금융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을 최우선 고려해 이달 중 선정 기업을 결정할 방침

▶ 영란은행, CBDC 결제사례 확산과 민간 앱 혁신 위한 시범사업 착수..20만 파운드 예산에 5개월 일정

- BOE의 시범사업은 20만 파운드 예산으로 5개월간 추진될 예정이며, 사업자 선정에 참여한 기업에 70개 이상의 정보 제공을 요구했고, 참여 기업들은 모두 지난해 연말에 답변을 제출
- BOE는 시범사업에서 모바일 월렛 앱, 가맹점 웹사이트, 핵심 원장을 위한 백엔드 서버 개발을 추진하며, 기간이 넉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이 참여해 CBDC가 시장의 큰 관심 분야임을 보여 줌
- BOE는 로사린드 프로젝트(Project Rosalind)*, BIS 이노베이션 허브 등과 공동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CBDC 결제사례 확산과 앱 혁신을 위해 민간 기업 참여를 결정했다고 설명
 - * 배포용 소매 CBDC 애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 프로토타입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로 BOE와 BIS가 공동 추진
- 11개 대기업과 9개 중소기업이 참여했고, 사용자 경험 테스트를 위한 프로토타입 형태로 진행될 예정
- 영국은 CBDC를 지지하는 사용자가 폭넓게 존재하며, 이들은 CBDC가 위험 및 통화 유출에서 안전하며, 복잡하고 번거로운 프로세스를 자동화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CBDC의 정부의 강압적 규제 및 프라이버시 노출 우려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보완될 것으로 여김
- BOE는 참여 기업에 ▲DOSS* 프레임워크 정의에 따른 진행 ▲작업 수행 이유와 주요 기술 결과물 ▲선호 UI 프레임워크 ▲특정 보안요구 사항 ▲기술 스택 제약 및 제한 여부 ▲오프라인 및 온라인 동일 기능 제공 여부 등 70개에 달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구
 - * Digital Outcomes and Specialists framework : 영국 공공기관이 디지털 서비스 구매 합의에 사용하는 프레임워크
- BOE는 기존 금융과 동일 수준 보안, 온오프라인 동일 서비스 등을 고려해 1월 중 사업자를 결정할 방침

- 영란은행이 추진하는 20만 파운드 규모의 CBDC 모바일 월렛 시범사업에서 11개 대기업을 포함한 총 20개 기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시장에서 CBDC에 대한 관심이 높게 형성됨을 보여줌
- 영란은행은 70개 문항의 사업자 정보 및 답변을 통해 심사를 진행 중이며, 기존 금융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 보증, 온오프라인의 동일한 서비스 제공 등을 최우선 고려해 2023년 1월에 사업자를 결정할 방침

[출처]

- City AM, "CBank of England publishes list of questions asked by suitors for its CBDC wallet", 2023.01.04.

블록체인 기술·정책·산업 동향

디지털산업본부 블록체인산업단 블록체인정책팀

[글로벌]

부테린, 올해 이더리움 확장성 대폭 개선...EIP-4844 본격화 전망

- 이더리움, 2022년에 롤업 1단계 진입...2023년에 레이어 2 확장성을 대폭 개선하는 EIP-4844 등장 전망
- EIP-4844, 새로운 유형 '블룸(Blob)' 전송...코인베이스 등이 대량 거래 처리와 수수료 절감 효과 입증

비탈릭 부테린(Vitalik Buterin) 이더리움 창립자가 2023년에 이더리움 '기본 롤업 스케일링(basic roll-up scaling)' 적용을 예상하고, 이를 통해 롤업 네트워크의 확장성이 비약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

▶ 부테린, 2022년에 롤업 1단계에 진입 평가...2023년에 레이어 2 확장성을 개선하는 EIP-4844 등장 전망

- 2023년 암호화폐 전망에서 부테린은 이더리움 기본 롤업(Rollup)* 스케일링에 도달했고, 이는 적어도 롤업이 1단계에 진입했으며 레이어 2 롤업 확장성 개선이 가능한 EIP-4844의 출범을 의미한다고 설명
* 롤업(Rollup) : 오프체인에서 일어나는 거래를 모아서 온체인에 기록해 데이터 가용성을 높이는 기술
- 부테린은 트위터를 통해 이더리움 진화 로드맵상 2022년 롤업 1단계를 넘어섰고, 2023년에는 확장성이 더욱 개선된 EIP-4844가 본격 등장할 것으로 전망
- EIP-4844는 부테린이 코인베이스, 월드코인 등 여타 이더리움 개발자와 공동 개발한 것으로 탈중앙화를 희생하지 않고, 롤업 솔루션의 네트워크 수수료(가스비)의 대폭 절감을 주목적으로 함
- EIP-4844는 프로토 댄크 샤딩*(Proto-danksharding) 기술을 통해 새로운 유형의 거래인 '블룸(blobs)'을 제안
* 샤딩(Sharding) : 대량의 데이터 처리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수평분할 해 물리적으로 서로 다른 곳에 분석 저장 및 조회하는 기술로, 수평 분할된 1개의 테이블을 샤드(Shard)라고 표현
- 프로토 댄크샤딩은 일반 트랜잭션과 유사하지만, 블룸 운반 트랜잭션(blob-carrying transactions)이라는 새로운 거래를 데이터 조각(블룸)을 추가 전송함
- 블룸은 데이터 조각(125KB)으로서 동일한 데이터를 가진 콜 데이터보다 비용이 저렴한 것을 활용하며, 롤업을 슬롯당 최대 2MB까지 확장해 일시적 확장 기능을 제공
- 코인베이스는 EIP-4844 도입으로 더 많은 트랜잭션을 더 낮은 수수료로 전송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사용자 경험을 크게 개선했다고 평가

- 부테린이 지난해 이더리움 롤업 솔루션이 기술 진화를 통해 이더리움 로드맵상 1단계에 진입했다고 평가하고, 올해는 레이어 2의 대대적인 확장이 가능한 EIP-4844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
- EIP-4844는 이더리움 2.0 업데이트가 완료될 때까지 임시 해결책으로 간주되며, 공동 개발에 참여한 코인베이스는 시스템에 적용한 결과 트랜잭션 처리 및 수수료 절감에서 매우 효과적이었다고 평가

[출처]

- Investing.com, "Ethereum's Vitalik Buterin Says He's Most Bullish About the Introduction of Rollups in 2023", 2023.01.02.

글로벌 블록체인 기술·정책·산업 동향

Global Blockchain Tech, Policy & Industry Trends

블록체인 기술·정책·산업

CONTENTS

1. BIS, 암호화폐의 금지·포함·규제 등 옵션 통한 위험관리 방안 제시
2. CBDC, 2022년에 16개 파일럿 추진...올해는 20개국 시범 운영 전망
3. AWS, 블록체인 첫 파트너십 체결...기업용 블록체인 시장 진입
4. 英 재무부, 4월 FSM 통과 예상...포괄적 스테이블코인 규제 방침
5. 美 하원, 암호화폐 소위원회 구성...공화당 주도 첫 입법으로 주목

블록체인 기술·정책·산업 동향

디지털산업본부 블록체인산업단 블록체인정책팀

[글로벌]

BIS, 암호화폐의 금지·포함·규제 등 옵션 통한 위험관리 방안 제시

- BIS, 암호자산 등락에도 자연 쇠퇴 가능성 희박...금융 안정성 위협 확대에 따른 대안 마련 시급성을 강조
- 암호화폐에 대한 금지·포함·규제를 조합해 위험관리...CBDC 통한 TradFi 혁신을 실질적 대안으로 제시

국제결제은행(BIS)이 암호자산 리스크 해소 방안으로 암호화폐의 금지(Ban), 포함(Contain), 규제(Regulate) 3가지 방안을 제시했고, CBDC를 통한 전통 금융(TradFi)의 혁신도 실질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

▶ BIS, 암호자산 등락 반복에도 자연 쇠퇴 가능성 희박...금융 안정성 위협 확대에 따른 대안 마련 시급성을 강조

- BIS가 '암호자산의 위험 해결 : 옵션 구성'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암호자산 생태계에 내재된 위험을 진단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3가지 방안을 제시

* BIS, Addressing the risks in crypto: laying out the options, 2023.1.12

- BIS는 암호자산이 전통금융(TradFi)과 동일한 위험과 취약점을 공유하지만, ▲높은 레버리지 ▲유동성 ▲만기 불일치 ▲정보 비대칭성 등으로 암호자산 위험이 더 크게 평가된다고 지적*

* BIS는 전통금융과 암호자산 모두 충분한 예금 보유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몇 년씩 연장하는 관행으로 만기 불일치 리스크를 안고 있지만, 암호자산은 각종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뱅크런 등 집단이동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고 설명

- BIS는 암호자산 시장이 예전부터 호황과 불황이 반복됐지만, 생태계가 존재하는 점을 들어 자연스럽게 쇠퇴 또는 소멸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평가

- 하지만 2022년 암호자산 시장실패는 암호화 시장 전반에 대한 금융 안정성 위협으로 확대되어, 위험 해소를 위한 대안 제시 시급성이 높아졌다고 강조

- BIS는 암호자산의 리스크 해소를 위해 암호화폐에 대한 상호 배타적이지 않은 금지, 포함, 규제 등 3가지 옵션 구성을 대안으로 제시했고, CBDC를 통한 전통금융의 혁신도 실질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

- BIS는 암호화폐 옵션 구성은 장단점이 분명해, 하나의 옵션만 선택하는 것이 아닌 3가지 옵션을 동시에 적용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고, 최근 G20 의장국으로 선출된 인도의 접근을 사례로 제시

▶ 암호자산, TradFi와 위험과 취약점 동일...높은 레버리지·유동성·정보 비대칭성 등으로 더 높은 위험 평가

- 암호자산 생태계의 중앙화 금융(CeFi)*과 탈중앙화 금융(DeFi)*은 모두 전통적 금융(TradFi)의 그림자 금융(Shadow financial)* 성격으로 취약점이 같지만, 암호자산은 제품 특성으로 위험이 더 크게 평가됨

* Centralized Finance: 중앙화된 주체가 제공하는 블록체인 금융 서비스로 중앙화 거래소, 스테이킹 서비스 등이 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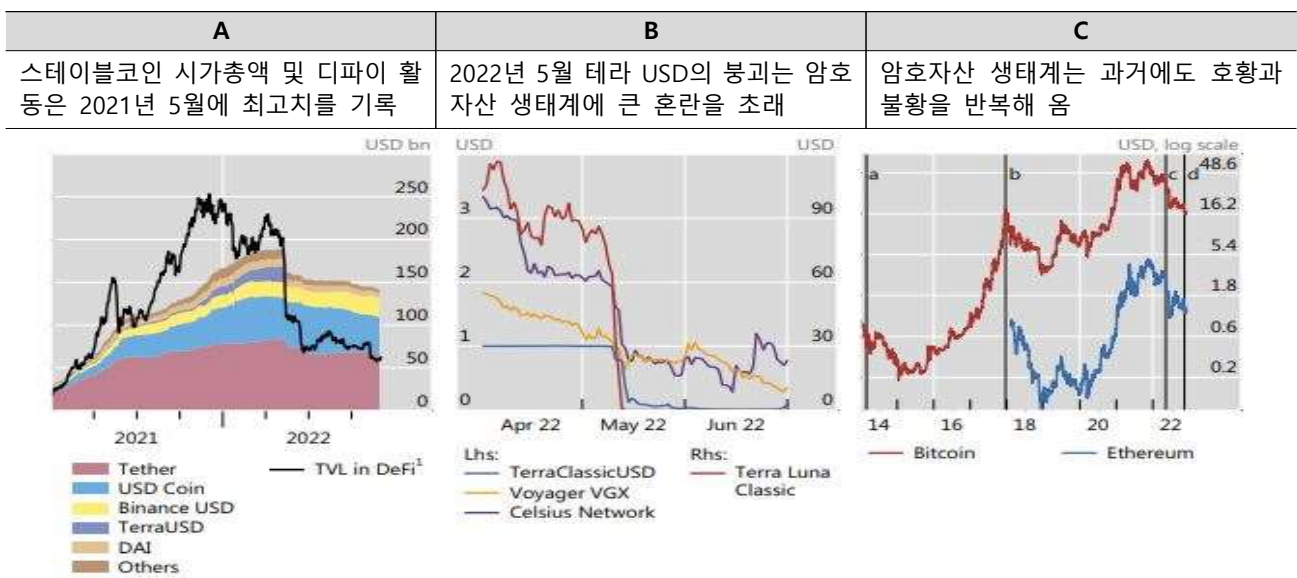
* Decentralized Finance: 중앙화된 주체 없이 탈중앙화된 프로토콜이 금융 서비스를 제공

* 은행과 비슷한 역할을 하지만 중앙은행의 감독을 받지 않는 금융 회사를 의미

- BIS는 더 높은 위험을 초래하는 암호자산 특성으로 높은 레버리지, 심한 유동성, 상대적으로 큰 정보 비대칭성, 만기 불일치 등을 지적했고, 국경을 넘나드는 암호화폐 서비스 형태도 위험을 가중한다고 평가

- BIS는 암호자산 시장 분석에서 암호화폐 및 스테이블코인 가격, DeFi 활동 등이 2021년 5월 최고점에 도달(그림 A)했고, 2022년 5월 테라 USD 붕괴를 계기로 생태계가 혼란에 진입(그림 B)했으며, 이후 침체기가 이어지고 있지만, 과거에도 큰 위기에도 불구하고 생태계는 생존(그림 C)했다고 평가
- BIS는 최근 암호화폐 지지자들이 2022년 시장실패를 탈중앙화 및 암호화폐의 문제가 아닌, FTX와 같은 CeFi의 실패였다고 강조하고, 진정한 DeFi는 사장 유동성에 탄력적이라고 주장한다고 소개
- 하지만, BIS는 암호자산이 금융 중개자 배제를 비전으로 제시하지만, 대다수 프로젝트가 효율적 서비스 제공과 규모 확장 등을 이유로 CeFi에 의존하고 DeFi의 거버넌스가 집중화된다고 지적
- 이런 CeFi와 DeFi 프로토콜 확산은 암호자산 자체 위험뿐 아니라 중개자의 불투명한 거버넌스, 부실한 고객자산관리 등의 위험이 가중되어 시장 무결성이 크게 훼손된 상태라고 평가
- BIS는 이런 결함에도 불구하고, 암호자산 시장혼란은 크게 확산하지 않아*, 실물경제 및 전통금융과의 상호연결을 통해 금융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여건이 마련됐고, 2023년이 적기라고 평가
- * BIS는 확산하지 않은 이유를 해당 시장이 충분히 성장하지 않았고, 전통금융과 연결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분석

[암호자산 가격 및 시가총액 변화]



출처 : Bloomberg; CoinGecko; DefiLlama / BIS, Addressing the risks in crypto 재인용

▶ 암호화폐 위험 해소, 암호화폐에 대한 금지·포함·규제를 조합...CBDC 통한 TradFi 혁신도 실질적 대안 제시

- BIS는 암호화폐 위험관리는 수십 년간 관련 분야에 집중해온 전통금융과 동일한 목표와 접근을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소비자와 투자자의 적절한 보호 ▲사기, 조작, 자금세탁, 테러자금 조달로부터 시장 무결성 유지 ▲금융 안정성 보호 등을 핵심 요소로 제시
- 또 중앙은행의 경우 통화시스템 무결성 유지를 중요 목표로 삼아야 하고, 신흥부흥 국가는 통화주권 문제를 자세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
- 특히 거시경제 불안정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큰 국가는 투자자들이 자산을 안정적 통화로 전환하기 위해 스테이블코인에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커, 통화주권과 실물경제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

- BIS는 암호화폐 옵션을 ▲특정 암호화폐 금지(금지 옵션) ▲TradFi 및 실물경제에서 분리수용(포함 옵션) ▲TradFi와 유사한 방식으로 산업 규제(규제 옵션)로 구분하고, 옵션을 선택적으로 결합할 수 있다고 설명
- **(금지 옵션)** 전체 또는 특정 방식으로 암호화 활동을 금지하는 극단적인 옵션으로, 장단점이 뚜렷함
- 암호화폐 전면 금지를 찬성 진영은 금융 시스템의 잠재적 피해를 제거하고, 투자자는 암호화폐 서비스 공급자의 위법 행위로 인한 손실 가능성을 피할 수 있어 매우 효과적이라고 강조
- 반대 진영은 암호화폐 전면 금지는 암호화에서 비롯되는 각종 혁신이 손실되거나 지연되며, 다양한 방식으로 규제 회피가 가능해 실제 법 집행이 매우 어렵다고 지적
- BIS는 암호화 활동 금지 조치는 중앙집중식 중개인 제재에는 효과적이지만, 제재가 없는 관할권 이동을 막을 수 없고, 투자자는 얼마든지 금지 회피가 가능해 결국 풍선 효과*로 이어진다고 지적
* 투자자는 금지가 적용되지 않거나 감독이 덜한 유사 활동을 찾는다는 의미로 원문은 Waterbed Effects로 표기
- BIS는 체인애널리시스(Chainalysis) 보고서를 인용해, 중국은 2021년 하반기에 암호화폐 활동을 전면 금지했지만, 중국 암호화폐 활동은 2022년 들어 더욱 증가했다고 분석
- 또 많은 국가와 사회가 점차 개인의 선택권을 보호하고, 노골적인 금지 정책을 꺼리는 추세가 강해지고 있어 암호화폐 금지 조치는 정부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평가
- **(포함 옵션)** 암호화 활동을 틈새시장에 가깝게 격리하는 방식으로 자금 흐름과 TradFi와 연결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BIS는 포함 옵션을 금지 옵션보다 더 합리적인 대응으로 평가
- 포함 옵션은 암호화폐에 대한 제약을 실물경제와의 모든 연결에 적용(예: 상품·서비스 지급 결제, 실제 자산 토큰화 규정 등)해, 암호자산 시장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TradFi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함
- 포함 옵션은 은행이 암호화폐 활동을 촉진하는 역할(파이프라인)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지만, 높은 수익을 노리는 일부 기업 및 투자자들이 고위험 투자에 나서는 것을 막을 수 없어 투자자 보호 및 시장 무결성 보장에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음
- 고위험 투자에서 손해를 본 투자자들은 규제 당국 책임을 거론하며, 사후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까다로운 정치·경제적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도 존재
- **(규제 옵션)** TradFi와 동일한 원칙과 도구를 적용해 암호화 활동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규제 당국은 암호화 활동이 수행하는 주요 경제적 기능*을 파악하고 규제 도입에 따른 영향 평가가 필요
* BIS는 사회경제학자 머튼(Merton)이 1995년 제시한 이론을 기반으로 금융 시스템 기능을 ①결제 지급 및 정산 ②대형 기업 확보를 위한 자금 모집 ③시간과 공간을 통한 자원 이전 ④불확실성의 관리와 위험 통제 ⑤의사결정 조정을 위한 가격 정보 제공 ⑥인센티브 문제 해결 6가지로 제시
- BIS는 규제 옵션을 도입한 국가는 암호화폐 기업 활동을 TradFi에 매핑해 해당 지침을 적용한다고 설명
- BIS는 규제 옵션이 특히 DeFi에 효과적이라고 강조하고, 암호화폐 규제 강화 추세로 암호화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하는 코드에도 일부 규제를 적용하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
- 규제 옵션은 암호화폐 기업 및 TradFi 금융 활동에 대한 일관된 규제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기존 규제 프레임워크를 통한 정책 목표 달성과 규정 준수 및 감독의 혁신이 용이한 점 등이 장점으로 꼽힘

- 하지만 암호화폐 기업은 명확한 기준점이 없는 경우가 많아 TradFi와의 매핑에서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크다고 지적하고, CeFi는 스테이블코인 및 플랫폼 등 기업 특성을 고려하고, DeFi 프로토콜은 사실상 제어하는 주체와 사람을 출발점으로 삼는 것이 유용하다고 지적

[암호화폐 위험 해결 옵션의 장단점]

구분	금지(Ban)	포함(Contain)	규제(Regulate)
방식	특정 암호화 활동을 금지	암호화 활동을 실물경제와 분리	암호화에 TradFi와 동일 규제 적용
장점	금융 시스템의 잠재적 위험 제거 암호화폐 사기로 인한 손실 예방	암호화 피해의 실물경제 확산 차단 TradFi의 암호화폐 승인 부작용 차단	금융 서비스에 대한 일관성 보장 규제 영역에서 혁신 역량 유지
단점	사회 자유 원칙과 충돌 혁신 역량의 손실 및 지연	실제 구현 및 효과에 한계 투자자 및 시장 무결성 보장에 한계	암호화와 TradFi의 매칭 어려움 디파이 등 특정 사례의 모호성
사례	중국 - 가상화폐 거래 및 투기 위험 방지를 위한 공지(2021.9)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 암호자산 노출에 대한 은행의 신중한 처리 표준을 제시(2022.12)	FSB(암호화폐/ 스테이블코인 규제) CPMI/IOSCO(스테이블코인 규제) EU(MiCA) 영국(FSM) 미국(디지털자산 행정명령)
인도 G20 의장국(모든 옵션 고려)			

출처 : BIS, Addressing the risks in crypto 재인용

- BIS는 암호화폐 위험관리 목표와 효율성을 고려해 각 옵션의 독립 적용 및 조합이 가능하다고 강조하고, 관할권마다 에너지 집약적인 작업증명이나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 배포 금지 등을 사례로 제시
- BIS는 공공정책 의무를 고려할 때 중앙은행 책무가 가장 막중해, 중앙은행은 통화 및 금융 시스템 핵심에 있는 지위를 활용해 TradFi의 건전한 혁신으로 효율적인 통화시스템을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
- 효율적인 통화시스템의 핵심은 품질 개선과 비용 절감이며, 이를 위한 가장 효과적 대안은 소매 부문의 빠른 결제 시스템* 도입이라고 강조하고, CBDC 도입이 가장 효율적 대안이라고 주장
 - * BIS는 CBDC 이외 주목 사례로 인도의 통합결제 인터페이스(UPI), 브라질 PiX, 미국 FedNow, SEPA 등을 제시
- BIS는 CBDC가 효율적으로 도입되면 ▲민간부문 혁신 지원 ▲비용 절감 ▲금융 포용성과 무결성 강화 ▲데이터 및 개인정보보호 보장 ▲신기술을 통한 TradFi 효율성 향상 등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
- 결론적으로 BIS는 암호화폐에 대한 3가지 옵션을 효과적으로 조합해 암호자산 위험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하고, CBDC 도입으로 TradFi의 혁신도 구체적인 대안이라고 강조

- BIS는 2022년 암호자산 시장실패는 암호화 시장 전반에 대한 금융 안정성 위협으로 확대되어, 위험 해소를 위한 대안 제시 시급성이 높아졌다고 평가
- BIS는 암호화폐에 대한 ▲금지 ▲포함 ▲규제 3가지 옵션의 장단점을 제시하고, 효과적 조합을 통해 위험을 관리해야 하며, CBDC 도입을 통한 TradFi의 혁신도 실질적 대안으로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

[출처]

- Ledger Insight, "BIS says approach to crypto risks is to ban, contain or regulate it", 2023.01.12.
- BIS, Addressing the risks in crypto: laying out the options, 2023.1.12
- IMF, "The crypto ecosystem and financial stability challenges", 2021.10
- BIS, Addressing the risks in crypto: online appendix , 2023.1.12

블록체인 기술·정책·산업 동향

디지털산업본부 블록체인산업단 블록체인정책팀

[글로벌]

CBDC, 2022년에 16개 CBDC 파일럿..2023년에 20개국이 시범 운영 전망

- 2022년 CBDC, 114개국이 발행 고려...9개 도매 CBDC와 7개 소매 CBDC 추진...전년 대비 2배 증가
- 러시아·일본, CBDC 출시 임박 평가 속 인도·호주도 빠른 대응 주목...중앙은행과 외부 기관 협력도 증진

블록체인 분석 기업 블록데이터가 2022년 디지털 결제 확산으로 세계 각국 중앙은행이 CBDC 도입에 속도를 올려 11개국이 CBDC를 출시했고, 110개국이 발행을 고려하며, 2개국만이 CBDC를 취소한 것으로 분석

▶ 디지털 결제, COVID-19 이후 소매 부문 현금 대체 가속화...중앙은행, CBDC 통해 디지털 결제 수용 추진

- 디지털 결제는 COVID-19 시절 도입이 촉발됐고, 이후 소매 부문을 중심으로 꾸준히 현금 거래를 대체하고 있으며, 전환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음
- 디지털 결제 확산에 따라 각국 중앙은행은 CBDC*를 효율적 대안으로 주목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결제 시스템 현대화 ▲디지털 결제 등 신기술 수용 ▲금융 포용성 확대 등을 기대
 - *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 국가 명목화폐와 동등한 가상통화로, 동일한 기능을 제공하는 스테이블코인과 달리 중앙화되고, 각국 중앙은행 및 통화 당국이 규제함
- 블록체인 데이터 전문 리서치 기관인 블록데이터(Blockdata)는 CBDC 확산에 민간 스테이블코인이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스테이블코인이 크게 확산하자 각국 중앙은행은 보유 자금의 디지털 환경에서 활용과 자금시장 통제를 위해 앞다퉈 자체 가상통화 개발(CBDC 프로젝트)에 나섰다고 분석
- 블록데이터는 CBDC가 결제 시스템의 편의성·효율성·안정성을 향상시켜 향후 디지털 결제 시장의 혁신과 활성화에 크게 촉진할 것으로 평가
- **(정의)** CBDC는 경제 전반에 걸쳐 금융기관 간 중계 서비스 혹은 모든 개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설계됐고, 전자를 도매 CBDC(wholesale CBDCs), 후자를 소매 CBDC(retail CBDCs)로 지칭
- **(도매 CBDC)** JP모건, 씨티은행, 캐나다 왕립은행 등이 금융 중개기관 간 ▲결제 개선 ▲증권 결제 효율성 향상 ▲거래 상대방의 유동성 및 신용위험 감소 목적으로 독점 개발을 추진함
- 은행 간 이체 및 관련 도매 거래를 지원하고, 중앙은행 준비금을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역할도 수행
- **(소매 CBDC)** 디지털 화폐를 시민에게 공급해 중앙은행이 중개은행 없이 직접 청구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지불과 관련된 신용 또는 유동성 위험을 해소함
- 소매 CBDC는 크게 토큰 기반으로 익명성을 보장하는 방식과 사용자 신원을 확인하고, 계정 기반으로 접속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구분되며, 각 중앙은행은 자체 결정에 따라 도입 모델을 결정하고 있음

▶ 2022년 CBDC, 114개국이 발행 고려...9개 도매 CBDC와 7개 소매 CBDC 추진...전년 대비 2배 증가

- 국제 문제 전문 싱크탱크인 아틀랜틱위원회(Atlantic Council)는 CBDC 추적기*를 통해 2022년 12월 기준 전 세계 114개국이 CBDC 발행을 고려하고 있고, 최근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도매 CBDC 실험에 착수해 G7 국가가 모두 CBDC 개발 단계에 진입했다고 분석

*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Tracker(<https://www.atlanticcouncil.org/cbdctracker/>)

[CBDC 확산과 단계별 비중]

구분	출시	파일럿	개발	연구	검토	기타
2022.12	10%	16%	30%	27%	13%	
2022.05	9%	14%	23%	41%	9%	
2021.06	6%	17%	18%	40%	12%	5%

출처: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Tracker

- 아틀랜틱위원회는 2020년 5월에는 35개국만이 CBDC를 고려했지만, 2022년 12월 기준 114개국으로 증가해 전 세계 GDP의 95%를 차지하는 국가들이 CBDC를 주시하고 있다고 평가
- 2022년에 러시아에 대한 금융 제재로 인해 국가들이 달러 이외의 결제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고 분석하고, 국경을 넘는 9개의 도매 CBDC와 7개의 소매 CBDC 파일럿이 추진된 것으로 분석
- 2022년 CBDC 추진 성과는 2021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평가되고, 2023년에는 호주, 태국, 브라질, 인도, 한국, 러시아 등 20개국 이상이 CBDC 시범 운영에 나설 것으로 전망
- 자메이카, 바하마, 나이지리아 및 동부 카리브해 8개국 등 총 11개국이 CBDC를 출시했고, 세네갈과 에콰도르 2개국이 CBDC를 취소함
- 블록데이터는 G20 국가 중 18개국이 CBDC 개발 고급 단계(개발, 파일럿, 출시)에 있는 것으로 분석

▶ 러시아·일본, CBDC 출시 임박 평가 속에 인도·호주도 빠른 대응 주목...중앙은행과 외부 기관 협력도 증진

- **(미국)** 2022년 6월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이 의회에 CBDC 지침 제출 방침을 밝히고, 2017년부터 디지털 달러의 타당성을 연구해 왔다고 공개
* 파월 의장은 CBDC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CBDC가 모든 미국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잠재적 금융 혁신이라고 평가
- **(러시아)** 초기에 CBDC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보였으나, 2020년에 디지털 루블의 실행 가능성 탐구에 착수하는 등 입장을 바꿨고, 2024년에 디지털 루블을 출시할 방침으로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
*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에 대한 서방 국가들의 금융 제재로 SWIFT를 우회하는 국제 결제 시스템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어 CBD 출시 속도를 높이고 있음
- **(EU)** 2021년 10월 유럽중앙은행(ECB)과 유로 지역 19개 중앙은행은 2년 일정으로 디지털 유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올해 발표될 결과에는 유로 지역 CBDC 설계 및 배포 관련 내용이 다수 포함될 예정
* 디지털 유로는 2025년 출시 예정이며, 유럽 집행위원회는 2023년 1분기에 프라이버시 보장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유로 관련 새 규정을 제안할 방침에 있어 법적 프레임워크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
- **(일본)** 일본은행(BOJ)은 2021년 디지털 엔화 도입 연구에 착수했고, 2022년 4월 소매 CBDC 2차 파일럿을 진행하는 등 CBDC가 급진전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조만간 디지털 엔화 출시를 예상함
- **(캐나다)** 캐나다는 2017년부터 영란은행, 싱가포르통화청 등과 함께 국경 간 결제 테스트 파일럿으로

재스퍼 프로젝트(Jasper Project)를 추진했고, 소매 CBDC는 보유하고 도매 CBDC에 집중하기로 결정

- **(인도)** 암호화폐의 위험을 고려해 일찍부터 CBDC 채택에 적극적인 입장을 밝혔고, 인도준비은행(RBI)은 암호화폐의 인도 금융 시장 및 거시경제에 대한 위협이 CBDC의 필요성을 증대시킨다고 언급
- **(뉴질랜드)** 2021년 9월 뉴질랜드 중앙은행(RBNZ)은 CBDC 구현 방식을 연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대중적인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다고 발표
- **(영국)** CBDC 연구 단계에 있으며, 올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디지털 파운드 발행 여부는 2025년 이후에 결정될 전망
- **(중국)** 가장 성공적 CBDC로 평가되는 디지털 위안화가 23개 도시에서 15개 프로젝트로 진행되고 있으며, 인민은행(PBoC) 자료에 의하면, 디지털 위안화 거래액이 2021년 8,800만 위안에서 2022년 8월 기준 1,000억 위안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남
* PBoC는 디지털 위안화는 스마트 계약과 같은 기능을 통해 ▲삶의 질 개선 ▲소비 촉진 ▲내부 수요 증대 등을 통해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보장하는 유용한 도구라고 평가
- **(싱가포르)** 싱가포르 통화청(MAS)은 수년 전부터 도매 CBDC 가능성을 연구해 왔고, 2021년 11월 민간부문과 공동으로 소매 CBDC인 오키드 프로젝트(Project Orchid)에 착수
* 하지만 MAS는 싱가포르의 소매 결제 시스템이 매우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소매 CBDC 발행 중단을 결정하고 도매 CBDC에 집중하기로 결정
- **(주요 파일럿 및 파트너십)** 블록데이터는 전 세계 중앙은행의 약 60%가 향후 1~6년 이내에 소매 CBDC를 발행할 것으로 전망하고, 중앙은행마다 시범 프로젝트 추진과 파트너십 체결이 적극 추진된다고 분석
- 블록데이터는 인도와 호주가 발 빠르게 움직인다고 진단하고, 홍콩, 태국, 중국, UAE, 캐나다 중앙은행은 국제결제은행, MIT 등 외부기관과 협력해 CBDC 연구를 진행해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긍정 평가

[CBDC 관련 최근 주목 사례]

구분	시기	내용	비고
인도	2022.10	RBI가 인도 국영은행 및 9개 상업은행과 CBDC 파일럿 착수를 발표하고 디지털 루피 발행을 위한 지속적인 파일럿 추진을 공개	2022.11월 착수
호주	2022.09	호주중앙은행(RBA)가 CBDC 파일럿 백서를 공개하고, CBDC eAUD의 잠재적 사용 사례를 평가하고 있다고 공개	2023년 결과 발표
mBridge	2022.10	국제결제은행과 4개국 중앙은행 및 당국(홍콩, 태국, UAE, 중국) 중앙은행과 공동으로 CBDC 플랫폼 개발을 추진	164건의 2200만 달러 외환 거래 수행
BoC와 MIT	2022.03	캐나다은행과 MIT는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신기술이 CBDC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를 진행	

출처: Blockdata, The State of CBDCs in 2022

- 2022년에 도매 및 소매 CBDC 파일럿 프로젝트가 총 16개 추진되어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고, 올해는 태국, 브라질, 인도, 한국 등 20개국 이상이 CBDC 시범 운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됨
- 블록데이터는 러시아, 일본은 CBDC 출시가 임박했고, 인도·호주도 CBDC에 대한 빠른 대응을 보인다고 평가했고, 상대적으로 EU와 영국 등이 CBDC에 대해 신중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

[출처]

- Blockdata, "The State of CBDCs in 2022", 2022.12.06.

블록체인 기술·정책·산업 동향

디지털산업본부 블록체인산업단 블록체인정책팀

[글로벌]

AWS, 블록체인 첫 파트너십 체결...기업용 블록체인 시장 진입

- 아바랩스와 첫 번째 블록체인 파트너십 체결, AWS 마켓플레이스에서 서버넷 관리서비스 배포 예정
- AWS, 블록체인 솔루션과 아마존 지원 프로그램 결합 강조...올해가 블록체인 시장 진출 최적기라고 강조

클라우드 서비스 1위 기업 아마존(AWS)이 웹 3와 블록체인의 주류 시장 확산을 전망하고, 블록체인 전문기업 아바랩스(Ava Labs)와 공동으로 레이어1 블록체인 확장 솔루션을 출시해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 시장에 진입

▶ AWS, 아바랩스와 제휴해 블록체인 시장 진출...블록체인·웹 3의 주류 시장 확산을 전망해 적극 투자 진행

- AWS 글로벌 책임자인 하워드 라이트(Howard Wright)는 블록체인과 웹 3가 시기를 지정할 수는 없지만, 주류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하고, 일찍부터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 시장 진출을 추진해 왔다고 언급
- 이번에 AWS는 블록체인 레이어 1 확장 솔루션 아발란체*의 개발사인 아바랩스와 제휴해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한 블록체인 확장 솔루션 시장 진입을 발표
 - * Avalanche : 탈중앙화 오픈소스 지분증명 블록체인으로 합의 프로토콜을 오픈소스로 공개했고, Avax 토큰을 발행
- AWS는 제휴를 통해 개인이 아발란체 노드를 더 쉽게 시작하고 관리할 수 있는 원클릭 노드 배포와 함께 아발란체 인프라 및 분산형 애플리케이션(dApp) 생태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방침
- 라이트 부사장은 아바랩스에 150개 국가 10만 개 이상의 파트너와 함께 AWS 플랫폼에서 제품을 배포할 수 있는 권한(APN)*을 부여했다고 밝히고, 블록체인 및 암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
 - * AWS Partner Network
- 아발란체는 AWS의 스타트업 및 초기 단계 기업가 지원 프로그램인 AWS 액티베이트(Activate*) 참여를 밝히고, 이를 활용해 체인에서 보유한 500개 이상의 애플리케이션 확장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강조
 - * 스타트업에 무료 도구, 리소스, 콘텐츠 등을 지원하는 AWS 지원 프로그램으로 최대 10만 달러 크레딧을 제공
- AWS는 이미 전 세계 이더리움 워크로드의 25%를 실행하고 있지만, 이번 아바랩스와의 제휴를 첫 번째 블록체인 기본 파트너십이라고 강조하고 현시기가 블록체인 시장 진출의 최적기라고 강조
- 아바랩스는 아발란체 서버넷 관리서비스를 AWS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배포할 계획에 있고, 이를 통해 공공 및 기업, 개인의 웹 2에서 웹 3로의 크로스오버를 가속화할 계획이라고 설명

- AWS가 블록체인 전문기업 아바랩스와 제휴해 블록체인 확장 솔루션 아발란체를 AWS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배포한다고 밝혀 블록체인 시장에 전격 진입
- AWS는 전문 솔루션과 아마존 지원 프로그램 결합은 블록체인 시장 진출의 완벽한 기회라고 강조하고, 공공 및 민간 기업의 웹 2에서 웹 3로의 크로스오버 수요를 가속화할 방침이라고 공개

[출처]

- Techcrunch, "AWS partners with Avalanche to scale blockchain solutions for enterprises, governments", 2023.01.12.

블록체인 기술·정책·산업 동향

디지털산업본부 블록체인산업단 블록체인정책팀

[영국]

英 재무부, 4월 FSM 통과 예상...포괄적 스테이블코인 규제 방침

- FMS 기반 스테이블코인 규제, FMI 샌드박스 활성화, 암호자산 입법화를 2023년 핵심 계획으로 제시
- 선부른 예측은 미래를 봉쇄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경고...포괄적 블록체인 입법 및 규제 중요성 강조

영국 재무부가 4월 중 금융 서비스 및 시장법(FSM)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하고, 이를 기반으로 스테이블코인 규제, 금융 인프라의 DLT 도입, 암호화폐 입법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공개

▶ 영 재무부, 포괄적 규제 통한 산업 육성에 초점...스테이블코인 및 분산원장 금융 인프라 수용에 박차

- 재무부 앤드류 그리피스(Andrew Griffith) 장관이 의회에서 4월경 '금융 서비스 및 시장 법안(FSM*)' 통과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규제 ▲FMI* 샌드박스 활성화 ▲암호화 입법 추진 등을 2023년 주요 추진 계획으로 공개
 - *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Bill *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
- FSM은 금융 인프라 관련 각종 EU 규정을 폐지하고, 대신 영국 규제를 신설하는 조치로 규제 기관에 세부 규정 통합 등으로 광범위한 규정 제정 권한을 부여해 규제 민첩성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스테이블코인) FSM은 스테이블코인 용어 대신 결제에 사용되는 '디지털 결제 자산'이라는 포괄적 정의를 제시하고, 영국은행과 금융감독청(FCA)에 각각 지불 시스템과 전자화폐 관련 규제 및 집행 권한을 부여
- (FMI 샌드박스) FSM은 분산원장기술(DLT) 기반 증권 결제 시스템에 초점을 맞춰 재무부, 영란은행, FCA가 공동 이니셔티브로 추진하며, 스마트 계약을 통한 자동화 및 잠재적 새로운 모델 시험 등을 추진
- (암호자산 입법) 재무부는 올해 중 소비자 보호를 대폭 강화한 금융 서비스 규정을 새로 도입할 계획이며, 여기에 암호화 법안도 포함해 암호자산에 대한 입법 기반을 마련할 방침
- 그리피스 장관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초기 특성을 고려할 때 포괄적 입법 추진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고, 시기상조란 지적도 있지만, 소비자 보호와 혁신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한 선택이라고 강조
- 장관은 포괄적 규제 입장을 강조하며, 특정 유행 기술이나 선부른 미래 예측은 피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 * 그리피스 총재는 과거 미시간저축은행 총재가 헨리 포드에게 말(Horse)은 여기 존재하지만, 자동차는 신기한 잠시 유행이라고 강조한 사실을 언급하며, 정부는 미래에 대한 봉쇄를 피해야 한다고 강조

- 영국 재무부가 2023년 주요 추진 계획으로 ▲스테이블코인 규제 ▲FMI 샌드박스 활성화 ▲암호화 자산 입법 추진 등을 제시하고, 4월 FSM이 통과를 계기로 본격 추진할 방침이라고 공개
- 포괄적 입법을 통해 소비자 보호와 혁신 지원에서 균형 유지가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강조하고, 선부른 예측으로 미래를 봉쇄하는 접근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

[출처]

- Ledger Insight, "UK Treasury outlines DLT, stablecoin, crypto-asset regulatory agenda", 2023.01.11.

블록체인 기술·정책·산업 동향

디지털산업본부 블록체인산업단 블록체인정책팀

[미국]

美 하원, 암호화폐 소위원회 구성...공화당 주도 첫 입법으로 주목

- 암호화폐 규제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의회 금융 규제에서 암호화폐를 주요 규제 대상으로 파악해 관심
- 미 언론, 암호화폐 규제를 공화당 핵심 의제로 삼으려는 조치로 평가...상원과 관계 등 해결 문제 산적

미 하원이 암호화폐 문제를 전담할 소위원회(subcommittee) 구성해 디지털자산·금융기술·금융 포괄성 등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고,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이 된 이후 첫 번째 입법으로 크게 주목받음

▶ 미 하원, 공화당 의원 주도로 암호화폐 소위원회 구성...규제 기관에 명확한 원칙 제공 등 규제 강화 추진

- 미 하원 공화당 의원이 중심이 되어 암호화폐 문제를 전담할 소위원회가 구성됐고, 소위원회는 연방 규제 기관에 명확한 원칙 제공, 암호화폐 산업의 다양성과 포용성 강화 등을 주요 목표로 제시
- 폴리τικο 등 미 언론은 암호화폐 산업을 병들고 많은 문제가 가득 찬 공간으로 인식하는 공화당 의원들이 암호화폐 산업 규제를 공화당의 핵심 의제로 삼기 위한 조치라고 평가
- 위원회는 디지털자산, 금융기술, 금융 포괄성 등의 문제를 다루며, 당내에서 CBDC 전문가로 통하는 프렌치 힐(French Hill) 의원이 의장을, 친 암호화폐 성향의 워렌 데이비슨(Warren Davidson) 의원이 부의장을 맡을 예정
- 이번 조치는 의회가 금융 규제에서 암호화폐를 주요 규제 대상으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크다는 평가
- 새로 구성된 소위원회는 FTX 붕괴와 최고 경영진의 사기 혐의 등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강력 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법안 개발에서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됨
- 차기 금융 서비스 의장으로 내정된 패트릭 맥 헨리(Patrick McHenry) 의원은 암호화폐 규제를 입법 안건 최우선 순위에 올려놨고, 소비자 보호와 혁신을 보장하는 명확한 규칙 제공이 중요하다고 강조해 옴
- 맥 헨리 의장은 FTX 붕괴 이후 SEC와 CFTC가 FTX를 사기 혐의로 조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유사한 사건 방지를 위해 새로운 입법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
- 미 정계는 하원 암호화폐 소위원회가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으로 자체 암호화폐 법률 제정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어떤 활동에 나설지 주목하고 있고, 성공 여부를 따지기에는 너무 이르다는 반응

- 미 하원 공화당 의원이 중심이 되어 암호화폐 소위원회 결성을 추진하며, 암호화폐 규제 기관에 명확한 원칙 제공, 암호화폐 산업의 다양성과 포괄성 강화 등을 주요 목표로 제시
- 미 언론은 공화당 의원들이 암호화폐 산업을 문제가 많은 공간으로 인식하고, 관련 산업 규제를 공화당 핵심 의제로 삼기 위한 조치라고 평가하며, 상원과 의 관계 등으로 성공 여부는 아직 미지수라고 언급

[출처]

- Politico, "House Republicans plan crypto panel in first move to oversee troubled industry", 2023.01.12.

글로벌 블록체인 기술·정책·산업 동향

Global Blockchain Tech, Policy & Industry Trends

블록체인 기술·정책·산업

CONTENTS

1. WEF, 탈중앙화 자율조직 툴킷 발표...조직 구조 혁신 대안으로 평가
2. 은행, 웹 3로 사업 모델 재구성...탈중앙화 위협 대응과 새 기회 모색
3. 日 금융청, 암호화폐에 은행 수준 감독 촉구...규제 자신감 반영 평가
4. 美 BoA, CBDC를 화폐 역사상 가장 중요한 기술 혁신으로 평가
5. EU 암호자산 규제법 MiCA, 번역 문제로 '23년 4월로 최종 투표 연기

블록체인 기술·정책·산업 동향

디지털산업본부 블록체인산업단 블록체인정책팀

[글로벌]

WEF, 탈중앙화자율조직(DAO) 툴킷 발표..조직 구조 혁신 대안으로 평가

- 고도성장 이뤄온 現 기업 구조 한계 도달...탈중앙화 자율조직을 대안으로 주목해 DAO 툴킷 발표
- DAO, 공동관리되는 코드 중심 분산형 자율 조직...블록체인 생태계에서 새로 주목받는 영역으로 평가

세계경제포럼(WEF)이 現 기업구조가 거버넌스 불투명성 등으로 한계에 도달했다고 지적하고, 탈중앙화 자율조직(DAO)*을 대안으로 주목하고, DAO가 공평한 거버넌스와 운영을 보장하는 높은 잠재력을 보유했다고 평가

*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s : 기존 창업자 중심의 기업구조 대신 스마트계약을 이용해 자동화되고 분산되도록 설계된 조직을 의미

▶ WEF, 고도성장 이뤄온 現 기업구조 한계 도달 지적...탈중앙화 자율조직을 대안으로 주목해 DAO 툴킷 발표

- WEF가 분산형 자율조직(DAO)*의 운영 및 거버넌스에 대한 상세 설명을 담은 툴킷*을 발표하고, DAO가 전통 기업의 단점을 해소하고, 공정한 거버넌스 및 운영으로 조직 혁신을 이끌 잠재력을 보유했다고 평가
- *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Toolkit

- WEF는 DAO가 1990년대 등장해 현재 수십억 달러의 자산관리, 수백만 명 투자자 참여, 각종 자선활동 등에 적용*되는 등 크게 붐*이루고 있지만, 운영·거버넌스나 법적 조치에 대한 논의는 이제 시작 단계라고 평가
- * WEF는 DAO라는 용어 사용은 '16년 이더리움 블록체인 프로젝트에서 첫 등장 했다고 소개

- 37페이지 분량으로 발표된 툴킷은 100여 명의 전문가가 DAO 정의, DAO 운영, DAO 거버넌스, 법적 구조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결론에서 각 주제에 대한 권장 사항을 제시

- WEF의 이번 툴킷 발표는 '21년 6월 '탈중앙화 금융 : 정책입안자 툴킷*에 이어 두 번째로 최근 높아진 DAO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

* Decentralized Finance(DeFi), Policy-Maker Toolkit : '22년 6월 후속 보고서(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s: Beyond the Hype)에서 디파이와 DAO 관계를 중요하게 언급함

- WEF는 DAO 툴킷을 DAO 구현을 위한 리소스 세트라고 설명하고, DAO 구현에서 적절한 정책 및 법적 프레임워크 구축이 DAO 이점을 달성하고, 위험을 완화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

- WEF의 DAO 툴킷 개발은 WEF의 CISA 프로젝트*와 와튼의 블록체인 및 디지털 자산 프로젝트(BDAP)*의 공동 결과물이며, 사회적 효과가 큰 DAO 사례 조사를 후속 조사로 진행할 방침이라고 공개

* Crypto Impact and Sustainability Accelerator : 암호화폐 생태계 전반에 걸쳐 ESG 경영 효과를 분석하는 프로젝트

* Blockchain and Digital Asset Project : 펜실베이니아 와튼스쿨의 블록체인 진화에 대한 연구 이니셔티브

- WEF는 現 단계에서 DAO 인식과 운영에 대한 이해, 거버넌스 강화, 법률문제 해결을 위한 프레임워크 구축이 필요하다고 진단하고, 일련의 통찰력과 리소스를 제공하는 툴킷을 개발했다고 설명

▶ DAO, 공동관리되는 코드 중심 분산형 자율조직...블록체인 생태계에서 새로 주목받는 영역으로 평가

- WEF는 DAO를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 및 관련 기술을 이용해 ▲자원을 할당하고(allocate resources)

▲활동을 조정하고(coordinate activities) ▲의사 결정을 내리는(make decisions) 조직으로 파악

- DAO 생태계가 매우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지만, ▲블록체인 및 디지털 자산 기술 활용 ▲할당 및 조정 기능 제공 ▲탈중앙화 거버넌스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구분
- WEF는 DAO를 공동으로 관리되는 코드 중심 분산형 자율조직으로 정의하고,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새로 떠오르는 부문(emerging part)이며, 잠재적으로 조직 구조의 중요한 혁신이 될 것이라고 강조
- DAO 개념은 '90년대에 등장했지만, 최근 들어 DAO가 전 세계적인 붐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하고, 2020년 탈중앙화 금융(DeFi)의 폭발적 성장세가 DAO의 등장을 촉진했다고 평가
- DAO는 디파이의 폭발적 성장세를 맞아 디파이 자원관리(manage resources)와 집단적 의사 결정 메커니즘 지원을 위한 도구 겸 인프라로 주목받았다고 설명
- WEF는 2021년 기준 DAO 관리자산이 3억 8천만 달러에서 160억 달러로 40배 증가*했고, 디파이 스마트계약에 투자된 자산가치 역시 6억 7천만 달러에서 130억 달러로 18배 증가했다고 소개
* Cointelegraph, 'DAO treasuries surged 40X in 2021: DeepDAO', 2021.12.31
- DAO는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 등의 기술을 이용해 중개자 및 제3자의 막강한 권한을 축소하고, 대신 토큰 보유자의 투표를 통한 조직 참여를 늘리고, 참여 및 기여한 만큼 보상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
- 이를 통해 여러 이해관계자의 거버넌스를 분산시키고, 운영 및 재무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정보와 권력의 비대칭성을 완화한다고 소개
- 최근 몇 년 사이 DAO 활동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DAO 도입 및 관리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도구 및 인프라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 하지만,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DAO는 아직 운영적, 기술적, 법률적 해결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
* 거버넌스에 많은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려는 DAO 시도는 명확하게 정의된 역할이 없을 경우 과도한 조정으로 기본 기능의 수행조차 지장을 받는 비효율성을 유도할 수 있다고 지적
- WEF는 중앙집중식 조직 역시 오랜 시행착오를 거쳐 보완됐다고 강조하고, DAO 역시 다양한 거버넌스 실험을 거치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분산화된 방식의 해결책을 찾을 것으로 전망

▶ **현 기업구조, 가장 거대하고 강력한 수준으로 발전...너무 관료적이고 불공평해 한계가 점차 커진다고 지적**

- DAO는 블록체인 기반 커뮤니티를 중심으로(community-oriented) 코드로 운영되어(Code-driven) 기존 조직과 운영 방식이 크게 다름
- DAO는 현 기업구조가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강력한 수준으로 발전했지만, 너무 관료적이고 포괄적이며 불공평해 소수 이해관계자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한계가 점차 커지고 있다고 지적
- 반면 DAO는 커뮤니티, 근로자, 환경주의자 등 소수 이해관계자의 거버넌스 참여를 보장해 다양한 의견 청취와 빠른 반영이 가능한 점에 주목해 새로운 조직 구조를 위한 기술적 접근이라고 평가
- DAO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운영 및 거버넌스에 직접 참여해 각자의 이해관계를 보다 공정하게 조정할 수 있고, 조직 목표 달성에 기여한 만큼 구매자와 판매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지급

- 하지만 DAO는 너무 광범위한 참여로 기본 조직 운영에 문제가 생기는 운영 리스크가 존재하고, 계약 관계 설정, 은행 계좌 개설, 외부 서비스 제공업체와의 관계 등에서 법적인 논란을 노출할 가능성이 큼
- 이외에도 기여자 모집 등 인력 운영과 분산화 및 표준화된 온보딩 관리 등도 DAO가 해결해야 할 문제임
- WEF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보상 체계 도입, DAO 도구 및 인프라 개발 등이 추진되고 있으며, 새로운 정책* 개발도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소개
 - * WEF는 소규모 그룹이 중요 작업을 관리한 후에 투표로 전화하는 점진적 탈중앙화 접근이나 기여자의 기능을 전문화해 조정 과정을 개선하는 방식 등이 도입되고 있다고 설명

▶ 기업의 계층적 관리 구조를 해체, 새로운 자원 할당과 거버넌스 전략의 코드화 등으로 새 메커니즘 제공

- DAO는 기존 기업의 계층적 관리 구조를 해체하고 자산 및 기타 디지털 자산의 관리 및 할당에서 새로운 메커니즘을 제공함
- 따라서 DAO는 ▲고전적 소유권 분리 ▲거버넌스 확대에 의한 통제 변화 ▲노동·참여·기여와 보상의 결합과 같은 특징을 가져 프로토콜 기반 네트워크 관리, 애플리케이션 관리, 투자 유치, 공공자금 조달, 사회 캠페인 활동 등에 적합하다는 평가
- DAO는 복잡하고 역동적인 거버넌스 프로세스 지원을 위해 다양한 투표 프로세스와 도구 및 거버넌스 프로세스 도입이 추진됨
- WEF는 최근 DAO 프로젝트는 효율성과 효과의 균형유지 등을 위해 스마트계약 코드에서 DAO의 목적, 기여자 역할, 책임, 인센티브 등을 코드화한 DAO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는 추세가 강해 진다고 진단
- DAO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또는 DAO 프레임워크)는 블록체인에 DAO를 배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 계약 템플릿으로 정의되며, 재무 다중서명자, 핵심 기여자, 토큰 보유자 역할을 지정하는 형태로 운영됨
- 이 경우에 토큰 보유자를 거버넌스 권한에 따라 더 세부적 등급으로 나누는 경우도 등장하고 있음
- 의사 결정 투표는 DAO 코인을 보유한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해 합리적 무관심(rational apathy)과 금권정치(plutocracy)와 같은 기존 거버넌스 문제를 해소해 거버넌스 효율성 제고에 초점을 맞춤
- 하지만, 아직 DAO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해관계 조정에서 법률 및 규제 환경이 명확하지 않아 운영 및 거버넌스 리스크가 존재하며,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

▶ DAO, 유한책임 및 법인격의 부재...법적 책임에서 회원 보호 위한 법 구조 선택의 중요성 증대

- DAO는 법적 불확실성이 커 조직 목표 달성 및 회원 보호 등을 위한 법적 구조 선택이 큰 이슈를 이룸
- 글로벌 로펌들은 DAO의 유한책임(limited liability)과 법인격(legal personality)이 존재하지 않는 점을 강조하며, DAO와 회원을 법적 책임으로부터 보호하는 방안 도입이 중요하다고 강조
- DAO는 이해관계자 계약, 전통적인 조직 기능 수행, 개인의 책임 제한 등에서 적절한 법적 구조 선택이 필요하며, 조세 상 혜택을 위해 비법인 비영리 협회(UNA)*, 유한협동조합(LCA)* 등의 접근도 나타남
 - * unincorporated nonprofit association : 미 국세청의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에 의해 면세 신청이 허용됨

* limited cooperative association : 유한책임회사(LLC)와 법인의 중간단계로 비법인 관련 법(the law of unincorporated entities.)에 의해 설립된 법인

- 이러한 기존 법률 프레임워크에 DAO를 최적화하는 시도는 DAO에 확산 및 이해에 기여한다는 평가지만, 회사법 재정적 의무에 더해 증권법, 조세법, 자금세탁방지법 등 추가 요구사항의 증가를 가져온다는 지적
- WEF는 DAO에 최적화된 보편적인 법 구조는 존재할 수 없으며, 임무, 운영 활동, 관할권 등이 DAO 법적 구조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설명

[DAO와 다양한 법적 구조]

법적 구조	특징
무법인(Entityl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인 혜택을 받을 수 없음(유한책임, 법인) - 등록할 필요가 없지만, 불이행 처리 가능성이 존재
법인(Corporat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AO에 부적합한 거버넌스 요구, 지분 주주, 중앙집중식 관리
파트너십(Partnership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AO에 부적합한 무제한 책임 및 경직성
친 DAO 전통 법적 구조 (DAO-friendly traditional legal structur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AO 종류에 딸 장단점이 달라짐 - 세금 처리에 대한 법적 혜택이나 명확성 제공 가능 - 등록을 요구하는 경우 익명성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음
맞춤형 법적 구조 (Bespoke legal structur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AO를 고려해 분산화를 기반으로 설계 - 다른 DAO 형태와 비교해 장단점이 존재 - 아직까지 채택에 상당한 제약이 존재

출처 : WEF,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Toolkitto, 2023.1

▶ DAO, 구성 및 목적에 따라 달라지고 진화에 따라 지속 조정 필요...툴킷 활용으로 효율성 유지를 권고

- WEF는 DAO가 커뮤니티, 구성, 목적 등에 따라 달라져 범용적으로 통용되는 DAO 전략을 권장하기가 힘들고, 추천한 전략도 DAO의 지속 진화로 인해 조정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강조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효과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다양한 DAO 전략 개발이 이뤄지고 있어, DAO 효율적 도입과 거버넌스에 대한 검토. DAO 운영 전략 개발에 필요한 지침 제시가 효과적이라고 강조
- WEF는 이번 툴킷을 통해 목표 정의, 관리 기법 개발, 인력 분배 등을 통해 DAO 운영에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DAO 거버넌스는 강력한 투표 관행, 프로세스의 책임성 강화, 견제와 균형유지 등을 통해 효율성이 유지된다고 강조
- WEF는 DAO는 웹3와 마찬가지로, 새롭고 창발적 현상으로 10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이론에서 현실로 구현됐고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고 총평

- WEF는 DAO를 공동으로 관리되는 코드 중심 분산형 자율조직으로 정의하고,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새로 주목받고 있으며, 조직 구조의 중요한 혁신이 될 잠재력을 보유했다고 평가
- WEF는 DAO가 10년도 안 된 짧은 시간에 현실화하고 있으며, 운영, 거버넌스, 법적 구조 등에서 잠재력 구현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나타나 웹 3과 함께 '23년에 가장 주목할 이슈라고 강조

[출처]

- WEF,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Toolkitto', 2023.1.17
- Cointelegraph, 'WEF publishes new in-depth guide to DAOs to air issues', 2023.1.17

블록체인 기술·정책·산업 동향

디지털산업본부 블록체인산업단 블록체인정책팀

[글로벌]

은행, 웹 3로 사업 모델 재구성...탈중앙화 위협 대응과 새 기회 모색

- 은행과 웹 3, 과거 전자결제 시스템과 유사...초기 투자 기업이 혁신과 시장성과 독점 가능성 유력 평가
- 웹 3 구현, 고객 신원과 디지털 ID 연결이 최대 관건...디지털 월렛의 범용 로그인 기능 크게 주목 예상

글로벌 컨설팅 기업 베인앤컴퍼니가 블록체인, 스마트계약, 디지털통화, NFT 등이 통합된 웹 3가 은행 전체에 확산되기 시작했다고 평가하고, 웹 3 확산으로 상호운용성, 파트너십, 혁신 역량이 크게 부각될 것으로 전망

▶ 글로벌 은행, 웹 3 통해 효율적·혁신적 상품 개발 추진...고객 신원 시스템 정비가 구현 선결 과제로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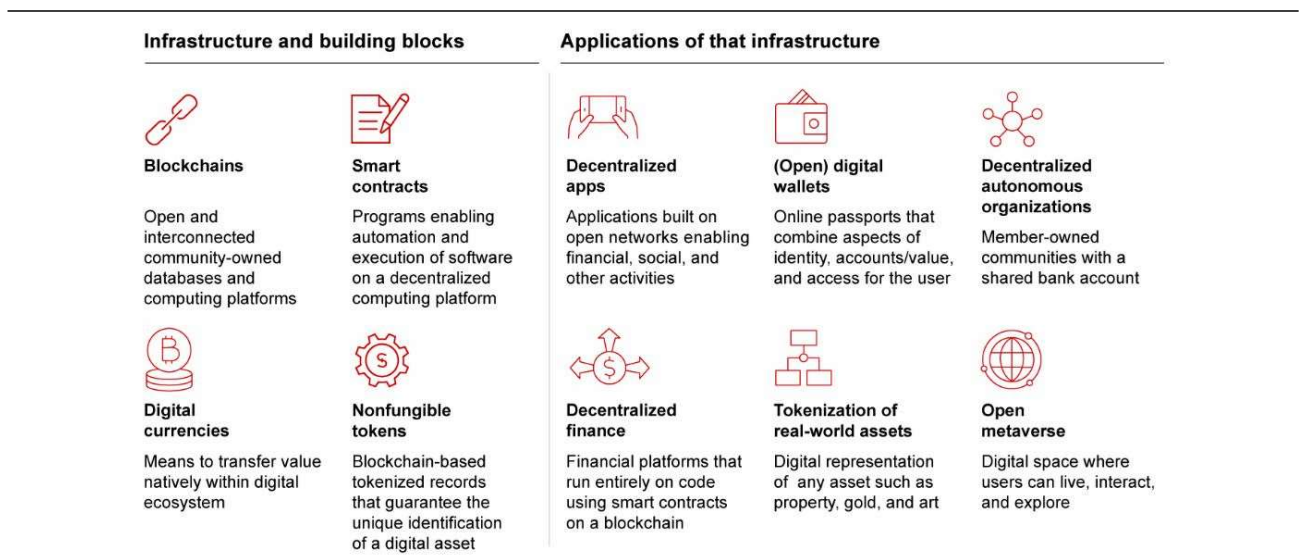
- 베인앤컴퍼니(Bain&Company)가 글로벌 은행들이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상품 개발을 위해 웹 3 기술을 주목하고 있다고 진단
- 은행은 금융 상품에 대한 풍부한 노하우와 높은 브랜드 신뢰도 등 새로운 기회발굴을 위한 장점을 다수 보유했지만 은행 간 경쟁뿐 아니라 핀테크 및 테크 기업의 탈중앙화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
- 베인앤컴퍼니는 금융기관 고위 경영진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체 조사에서 응답자의 60%가 웹 3가 은행의 전통 비즈니스를 크게 바꿔 놓을 것이라고 응답*했다고 소개
 - * 응답자들은 은행에서 웹 3의 광범위한 채택까지 평균 5~6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
- 응답자들은 웹 3가 은행의 직접 처리 프로세스를 늘리고 중복되는 고객 신원확인(KYC)을 줄여 15~20%의 운영비용 절감이 가능하고, 절감액 상당 부분이 상품 경쟁력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
- 베인앤컴퍼니는 웹 3가 선도적으로 채택될 영역을 ▲도매현금관리(wholesale cash management) ▲소매 결제(retail payments) ▲커스터디 및 자산서비스(custody and asset servicing) ▲민간 자본시장(private capital markets) 등으로 평가
- 고객 신원(Customers' identity) 시스템이 웹 3 잠재력 구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고, 은행들은 휴대와 영구 사용이 가능한 디지털 신원 시스템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

▶ 美 예탁결제원·테샷페이 등을 초기 도입자로 평가, 은행 병폐 해소와 서비스 투명성 향상 효과 주목

- 베인앤컴퍼니는 은행의 웹 3는 새로운 개념과 도구의 조합으로 구성된다고 강조하고, 블록체인, 디지털 자산, 스마트계약, NFT 등이 인프라스트럭처 및 빌딩 블록을 구성한다고 설명
- 해당 인프라를 기반으로 ▲탈중앙화 앱 ▲탈중앙화 금융 ▲오픈 디지털 월렛 ▲실물 자산 토큰화 ▲오픈 메타버스 ▲탈중앙화 조직 등이 등장하고 있다고 진단
- 은행의 블록체인 및 웹 3 활용이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지만, 일부 얼리 어답터 은행은 웹 3를 이용해 비즈니스 모델 재구성에 나섰다라고 평가하고, 테샷페이, UBS, 예탁결제원 등의 사례를 제시

- 테샷페이(TassatPay)*는 주요 은행과 파트너십을 맺고 은행이 실시간 기업 간 디지털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예금기반토큰(deposit-backed tokens)을 발행해 5,000억 달러 이상의 거래를 수행
- *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결제 및 교환 솔루션을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으로 뉴욕금융감독청(NYDFS)이 최초로 승인한 디지털 결제 플랫폼을 통해 은행과 B2B 고객간 실시간 거래를 지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프라이빗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평가
- 스위스 바젤의 UBS 그룹은 블록체인 기반 거래소와 전통 거래소에서 모두 거래되는 스위스 프랑으로 표시된 3년 만기 디지털채권을 출시했고, 미국 예탁결제원(DTCC)*의 분산원장기술을 이용한 결제 플랫폼 아이온(Ion)은 16만 건의 거래를 병렬처리함
- * Depository Trust & Clearing Corporation : 1999년 설립된 미국 금융 서비스 기업으로 금융 시장에 대한 청산 및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며, 미 증권거래에서 필수적인 기업으로 미국에서 대부분의 증권거래 결제 기능을 수행
- 웹 3 멀리 어답터 은행은 이를 통해 बैं킹 서비스가 더 빠르고, 더 저렴하고, 더 투명해지고 복원력이 향상됐다고 판단하며, 느리고 불투명한 프로세스로 인한 고객 불만과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비용 부담 등 기존 은행 업무의 고질적 문제를 일부 해결했다고 평가

[은행 웹 3의 인프라 및 빌딩 블록]



출처 : Bain & Company, Andreessen Horowitz

▶ 웹 3 도입, 과거 전자결제 환경과 유사...초기 투자 기업이 혁신과 시장성과 독점 가능성 제기

- 베인앤컴퍼니는 웹 3가 은행 전체 가치사슬과 다양한 기관과 각종 조정 능력을 통합하는 생태계 접근 방식 지원에 주목해 금융 비즈니스 환경을 새로 만들고 있다고 평가
- 은행은 스위프트결제망(Swift payments network), 유럽결제망(Euroclear), 신용카드 네트워크, 증권거래소 등과 연결되어 다양한 업무를 처리했고, 웹 3는 많은 기관과 사람들을 모두 연결할 방안을 제공
- 각종 디지털 자산은 은행과 연결을 추진하고 있어, 은행은 각종 기회 포착이 가능하고, 단순 스마트계약 서비스 제공 대신 신뢰할 수 있는 스마트계약 선별 등을 통해 고객 신뢰를 더욱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
- 하지만 은행은 탈중개화(disintermediation)를 앞세운 핀테크·빅테크 기업의 도전에 당면했고, 이들은 웹 3를 이용해 중개자를 배제해 고객에게 더 큰 가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은행과의 경쟁에 나섬
- 베인앤컴퍼니는 은행에게 웹 3는 과거 전자결제 도입과 유사하다고 지적하고, 초기 투자 기업이 기술

혁신 및 시장성과를 독식할 것으로 전망

- 웹 3가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은행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겠지만, 도입 및 구축에 긴 시간이 필요해 전반적인 수익성에 대한 판단이 불분명하다고 지적
- 하지만, 베인앤컴퍼니는 웹 3를 둘러싼 은행의 주된 고민은 두루뭉술한 도입 검토가 아닌 정확히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시작할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

▶ 웹 3 구현, 고객 신원과 디지털ID 연결이 최대 관건...표준 및 고객 자기결정권 등에 따라 추이 변화 전망

- 은행의 웹 3 채택은 규제 불확실성과 광범위한 채택이 큰 부담이며, 기존 아키텍처 수정에 상당한 투자와 긴 투자 회수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 등이 장벽으로 작용
- 대다수 은행은 기존 인프라가 충분하다고 생각해 투자 결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웹 3 생태계가 분야별로 편차가 커 상호 연결을 통한 서비스 제공까지 해결할 문제가 다수 남아있음
- 이 과정에서 규제된 공간에서 웹 3 잠재력 구현을 위해서 강력한 고객 신원확인(KYC)에 디지털 ID 연결이 최대 관건이라고 강조
- 휴대가 가능한 영구적 디지털 ID 등장으로 고객은 자신 데이터를 자신이 소유하고, 여러 앱에서 사용하고, 이를 서비스 공급자와 공유하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
- 이러한 변화 고객과 공급자 간 관계를 변화시켜 상호작용을 더 원활하게 하고, 더 안전하고, 더 비용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고 프라이버시가 강화된 제품은 더 큰 맞춤형이 구현될 전망
-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KYC 기술의 진화, 관련 표준의 확립, 고객이 자신의 자격증명을 관리하는 솔루션의 보편화 등이 먼저 이뤄져야 함
- 현 은행 고위임원들은 디지털 신원 최대 장애물을 은행이 일련의 표준에 동의하고, 서로 정보를 제공하는 해야 하는 점으로 파악하고, 이러한 방대한 네트워크 구성은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
- 디지털 신원에 대한 접근이 심화할수록, 웹 3 디지털 월렛이 크게 주목받을 전망
- 디지털 월렛은 범용적 로그인 기능을 제공해 사용자를 상호 운용 가능한 은행 계좌와 연결하고 각종 애플리케이션 사용을 지원하며, 디지털 여권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음
- 과거 웹사이트 로그인 기능처럼 월렛 연결(connect wallet)만 클릭하면, 각종 디지털 상품과 데이터를 소유하고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이 조만간 구현될 전망

- 베인앤컴퍼니가 글로벌 은행이 혁신적인 상품 개발을 위해 웹 3 기술을 주목하고 있고, 본격적인 웹 3 도입까지 5~6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
- 현 웹 3 시장이 과거 전자결제 솔루션 도입기와 유사하다고 평가하고, 초기 투자기업이 기술 혁신 및 시장성과를 독식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은행의 투자 경쟁이 점차 가열될 것으로 예상

[출처]

- Bain & Company, "Web3 Experiments Start to Take Hold in Banking", 2022.12.14.

블록체인 기술·정책·산업 동향

디지털산업본부 블록체인산업단 블록체인정책팀

[일본]

日 금융청, 암호화폐에 은행 수준 감독 촉구...규제 자신감 반영 평가

- 암호화폐 거래소 파산, 느슨한 거버넌스와 규제 및 감독 부재가 원인이라고 강조
- FTX 저팬, '23년 2월에 투자자 자금인출 허용 발표...FSA, 규제 성공사례로 판단해 자신감 과시

일본 금융청(FSA)이 암호화폐 시장 규모가 나날이 커지는 상황에서, FTX 파산은 느슨한 거버넌스와 내부 통제, 규제와 감독의 부재 때문에 발생했다고 강조하고, 전 세계 규제 당국에 엄격한 규제 적용을 촉구

▶ FTX 저팬, '23년 2월 일본 투자자 자금인출 허용 발표...FSA, 규제 성공사례로 판단해 자신감 과시 평가

- 야나세 마모루(Mamoru Yanase) FSA 부국장이 효율적 암호화폐 규제를 위해서는 은행과 동일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전 세계 규제 당국을 상대로 암호화폐 거래소에 은행 수준의 규제 적용을 촉구
- FSA는 FTX 파산은 산업에 막대한 타격을 준 것 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규제가 국가별로 큰 편차가 있음을 알려줬다고 강조하고, FTX CEO의 사기 혐의 조사 등으로 더 강력한 암호화폐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강조
- 마모루 부국장은 FTX 실패는 암호화 기술 때문이 아니라, 느슨한 거버넌스와 내부 통제, 규제 및 감독의 부재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일본의 엄격한 규제 프레임워크는 투자자를 안전하게 보호했다고 주장
- 이는 FTX 저팬과 리퀴드(Liquid)*가 '23년 2월에 FTX 자금인출을 허용할 방침이라는 발표를 언급한 것임
* 2022년 2월 FTX는 FSA로부터 타입 1 라이선스를 취득한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 Liquid를 인수해 일본에 진출함
- FTX는 '22년 11월 파산에도 불구하고, '22년 12월 FTX 저팬은 FTX 그룹 변호인단은 공동으로 일본 투자자 현금과 암호화폐는 일본법 재산권 규정에 따라 FTX 저팬의 소유가 아니라고 발표
- FSA는 '22년 11월 FTX가 고객 인출을 중단하자마자, 곧바로 FTX 저팬에 대해 ▲영업정지 ▲국내 자산 보유 ▲사업 개선 명령 등 3가지 명령을 내렸고, 명령 부과 다음 날 FTX는 미국에서 파산을 신청함
- FSA가 전 세계 규제 당국을 상대로 강력한 규제를 촉구한 것은 일본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자신감이 반영됐다는 평가며, 이를 계기로 암호자산 등 디지털 자산 수용에 더욱 속도를 높일 전망
- 한편, FSA 허가를 획득해 '21년 하반기 일본 시장에 진출한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최근 비즈니스 환경 변화를 이유로 일본 사업 중단을 발표해 규제 강화 여파를 보여줌

- 일본 금융청이 FTX 파산에도 불구하고, 일본 투자자를 안전하게 보호한 점을 강조하며, 전 세계 규제 당국을 상대로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 은행과 동일 규제 적용을 촉구
-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FSA의 자신감이 반영됐다는 평가가 제기되며, 이를 계기로 암호화폐를 포함한 디지털 자산의 수용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됨

[출처]

- Bitcoin.com, "Japan Urges Regulators Worldwide to Subject Crypto Exchanges to Bank-Level Oversight", 2023.01.19.

블록체인 기술·정책·산업 동향

디지털산업본부 블록체인산업단 블록체인정책팀

[미국]

美 BoA, CBDC를 화폐 역사상 가장 중요한 기술 혁신으로 평가

- CBDC와 스테이블코인, 화폐와 결제 방식의 자연스러운 진화로 평가...금융 시스템 혁신 잠재력 충분
- 선진국은 지불 효율성에, 개발도상국은 금융 포용성에 초점 전망...민간 디지털 자산 혁신은 공통 목표

뱅크오브아메리카(BoA)가 CBDC 때문에 화폐 정의가 바뀌지는 않겠지만, 향후 15년 동안 가치의 이동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잠재력이 있다고 평가하고, 화폐 역사상 가장 중요한 기술 발전이라고 강조

▶ CBDC와 스테이블코인, 화폐와 결제 방식의 자연스러운 진화로 평가...금융 시스템 혁신 잠재력 충분

- 미국 2위 은행인 BOA가 암호화폐 산업이 규제 강화 및 해킹 등으로 큰 타격을 입었지만, 올해 들어 주요 금융기관이 화폐의 미래를 중앙은행 디지털통화(CBDC)와 연결해 주목하고 있다고 평가
- BOA는 연구 보고서에서 CBDC와 스테이블코인은 화폐 및 결제 방식의 자연스러운 진화라고 강조하고, 디지털 자산이 시민과 화폐 간 상호작용 방식을 크게 바꿀 것으로 전망
- BOA는 CBDC는 본격적 논의가 시작된 지 채 5년밖에 안 됐지만,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혁신할 잠재력을 충분히 증명했다고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화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 혁신이 될 수 있다고 강조
- BOA 연구팀 책임자 알 케이샤(Alkesh Shah) 이사는 CBDC가 화폐의 정의를 바꾸지는 않겠지만, 향후 15년 동안 가치가 이전되는 방법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
- BOA는 CBDC가 설계 및 발행 방식에 따라 장단점이 다르지만, 선진국 중앙은행은 지불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고, 개발도상국 중앙은행은 금융 포용성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
- 하지만, CBDC에 위험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CBDC가 은행 예금과 경쟁을 주도할 수 있고, 전 세계 국가의 통화 주권과 불평등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설명
- 또 일반인보다 현금 사용 비중이 높은 계층에게 재정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
- 이런 이유로 일부 중앙은행은 CBDC를 외면할 수 있지만, 대다수 중앙은행은 일부 위험을 감수한 채 기술 채택에 나서 민간 부문의 디지털 자산 혁신을 앞당길 것으로 전망

- 미국 2위 은행 BoA가 연구 보고서를 통해 CBDC가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혁신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화폐 역사상 가장 중요한 기술 혁신이 될 수 있다고 평가
- 이미 주요 금융기관은 CBDC가 화폐의 미래와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CBDC와 스테이블코인이 화폐와 결제의 자연스러운 진화 과정이라고 분석

[출처]

- Dalesreport, "Bank Of America Believes Central Bank Digital Currencies (CBDC) Are The Future Of Money", 2023.01.17.

블록체인 기술·정책·산업 동향

디지털산업본부 블록체인산업단 블록체인정책팀

[EU]

EU 암호자산 규제법 MiCA, 번역 문제로 '23년 4월로 최종 투표 연기

- MiCA, '22년 6월 유럽이사회·유럽의회 등이 도입에 합의...공동 라이선싱으로 통한 포괄적 규제안 평가
- 시장 무결성 위해 내부자 거래, 내부정보 불법 공개 등 엄격 규제, 각국 승인 거쳐 '24년 4월 발효 예정

암호자산에 대한 포괄적 규제법으로 큰 주목을 받는 EU MiCA 법에 대한 최종 투표가 24개국 번역 문제로 기존 '23년 2월에서 4월로 연기됐고, 최종 투표 지연에 따라 법안에 대한 세부 사항 논의도 지연될 전망

▶ MiCA, 유럽이사회·유럽의회·증권시장감독청 등이 '22년 6월 도입에 합의...'23년 4월로 최종 투표 연기

- EU의 암호화폐 규제 법안인 MiCA의 최종 투표가 기술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23년 4월로 연기
- MiCA(Markets in Crypto Assets Regulation)는 유럽에서 운영되는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사 및 발행자에 적용되는 공동 라이선싱 제도로, 유럽이사회와 유럽의회 등이 '22년 6월 MiCA 도입 임시 합의를 발표
- 당시 유럽이사회, 유럽의회,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은 암호화폐 자금세탁방지 조치를 발표한 지 불과 하루 만에 MiCA 도입에 합의해 암호화폐에 대한 포괄적 규제를 적극 지지함
- MiCA는 시장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 내부자 거래, 내부정보의 불법 공개 및 암호화폐 관련 기타 조작 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하며, 암호화폐 발행인과 거래자 신원 공개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 당초 법안은 '22년 11월 최종 투표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법안의 번역 문제로 '23년 2월로 한차례 연기됐고, 이번에 '23년 4월로 또다시 연기됨
- 이러한 연기는 MiCA와 같은 법적인 조치는 EU 모든 회원국 공식 언어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EU 규정에 따른 것으로, MiCA 법안이 40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이라 번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한편, MiCA 보완을 위해 MiCA와 같이 처리될 예정이던 자금이체규정(TFR)* 투표도 '23년 4월로 연기됨
* Transfer of Funds Regulation : 암호화폐 거래에서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고객 신원확인을 의무화함
- '23년 4월 MiCA 법안이 최종 합의를 통과하면, EU 각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 MiCA 도입이 시작되며, 초기 법안은 '24년 4월부터 발효될 전망

- '22년 6월 유럽이사회, 유럽의회, 유럽증권시장감독청은 암호화폐에 대한 포괄적인 법인 MiCA 도입에 합의했고, 이에 대한 최종 투표가 24개국 언어 번역 문제로 '23년 4월로 연기됨
- 이번 연기 결정으로 MiCA와 같이 처리될 예정이었던 자금이체 규정도 '23년 4월로 연기됐고, MiCA가 최종 투표를 통과하면, EU 각국 정부의 승인을 거쳐 본격적인 도입이 시작될 전망

[출처]

- Paypers, "MiCA final vote is postponed due to translating issues", 2023.01.18.